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삼위 일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교황이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고 어떤 좋은 말에도 현혹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8월 23일 (토) 제 149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기독교에도 도전과 동시에 기회

세계 언론, '교황 한국방문은 아시아 교세확장 위한 전초 기지' 분석

"21세기 로마가톨릭의 가장 큰 도전이 시작됐다!" 외신들은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을 크게 보도했다. CNN 등은 교황의 한국 도착과 청와대 연설을 생중계하고, 한국 가톨릭의 특징을 상세히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방문은 아시아로 교세를 넓혀가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방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남미 미국 유럽에서 얻고 있는 교황의 인기가 아시아에도 확산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BBC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한국은 교황의 아시아 교세 확장을 위한 최적의 전초 기지"라며, "교황은 즉위

하면서부터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이번 방문으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또 "교황청 통계에 따르면 가톨릭 인구의 3%만 아시아에 살지만 올해 (아시아의) 세례자는 유럽 지역보다 많다"며, "아시아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인구의 60%가 몰려 있는데도 가톨릭 신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아시아에 교황이 가는 것은 바티칸으로는 도전인 동시에 기회"라고 전했다(The Pope's Asia Challenge: Pope to Visit South Korea as Catholic Church Tries to Make Inroads in Region With Few Members).

을 인식하고 있다"며 "선교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톨릭 신자는 적지만 엄청난 가능성이 엿보이는 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퓨리서치센터 통계치에 따르면 2010년 세계 가톨릭 신자 가운데 72%가 남미에, 3분의 1이 유럽에 있는 반면 아시아에는 3%가 있다. 2010년 아시아 가톨릭 신자 1억3천1백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필리핀 신자들이었다.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나라다. 올 2월 새 추기경을 서임할 때도 교황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에서 새 추기경을 임명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로마가톨릭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톨릭 신자 비율은 각각 전체 인구의 10%와 7% 남짓하다.

로마가톨릭은 개신교와 경쟁해 왔다. 특히 개신교의 복음주의 운동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받아왔다. 개신교는 로마가톨릭보다 나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소규모 평신도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사로잡는 선교활동을 펼친다. 일부 교회는 부가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아시아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시아에서 로마가톨릭은 외세의 식민주의와 결부되면서 박해를 받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수백년 전 아시아에 가톨릭 신앙을 들여왔다. 일각에서는 개발도상국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에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서구 열강이 연상되는 로마가톨릭의 이미지를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3면으로 계속)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으로 바티칸이 아시아 지역에서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60%가 몰린 지역이지만 가톨릭 신자 분포는 12%에 불과하다.

로마가톨릭으로서 아시아는 유럽과 미국에서 감소하는 신자수를 상쇄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갈등을 빚을 여지가 있는데다가, 개신교 선교활동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며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교황청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지역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즉위한 이후, 아시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9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인도를 방문한 이후, 아시아를 방문한 교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르헨티나 태생인 교황은 2013년 브라질을 순방하고 귀국하던 길에 "반드시 아시아에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한국 방문 여정에, 교황은 젊은 아시아 가톨릭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청년대회에 참



한국기독교교회는 교황의 방문으로 다원주의적 신학과 복음적 개혁주의 신학으로 양분돼 나타났다.

석해 아시아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집전했다. 또한 아시아 각국에서 온 주교 90명도 만났다. 내년 1월에는 필리핀과 스리랑카도 방문할 계

획이다. 교황청 성좌 공보실장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브리핑에서 "세계 모든 이들이 아시아의 중요성

자녀 1명 양육비 24만 달러!

WSJ, 미국부모들 벽찬 경제현실 소개 현명한 대책 제시

아이 한명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 일반 아동의 경우 24만 달러 이상(달러의 현재 가치로 고려한 것이며 대학 학비는 제외됨)부터 시작한다. 자폐증 등 장애가 있는 아이의 경우 위 금액에서 140만~240만 달러(메디케어 등 정부지출 포함)를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면 지출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아직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세대에기에, 아기를 양육하고 키우는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재정 계획을 다시 정비할 때다(Can You Really Afford a New Child?: Many Parents Fail to Plan Fully for the Financial Impact of a Newborn).

비상금 늘리고 탁아비용 계산 생명보험 포기 말고 예비해야

비상금을 늘려라

일리노이 주 록퍼드에서 활동하는 금융전문가이자 신생아의 아빠이기도 한 제이크 뢰셔는 "이것이 예산의 관점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한다.

생활비의 3-6개월 치에 해당하는 현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새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 비상금 액수를 늘려야 한다"고 뢰셔는 말한다. 여기에는 아기 분유, 아기 옷, 특히 뢰셔의 경험에 따르면 "미친 듯이 비싼" 기저귀가 포함될 수 있다(그는 기저귀를 다 써버리는 속도로도 깜짝 놀랐다). 아들이 태어난 후 그의 가계 지출은 200-300달러 늘어났다.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 기저귀에 드는 돈이었다.

많은 투자자들은 만일의 경우 퇴직연금 납부를 중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비상금 만들기를 꺼려한다. 뢰셔는 이것이 "초보 부모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말한다. 적립형 퇴직금 401(k)을 몇 번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퇴직금 잔액을 다 써버리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 그러지 말라.

탁아 비용을 위한 예산을 세워라

뢰셔는 운이 좋다. 자신과 부인이 일할 때 장모가 아들을 돌봐주기 때문이다. 가정과 돌보미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케어닷컴'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1만8천 달러가 드는 탁아비용은 수많은 가정에서 식비나 주거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가정이 탁아 비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84%가 일을 하고 있고, 전체 가계의 63%가 맞벌이였다. 탁아는 필수 요소인 경우가 많은 이유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경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뢰셔는 말한다.

(3면으로 계속)



2면

치료약 없는 에볼라 파동에 지구촌 초긴장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해천 목사(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김정혜 원로초등학교 교장이 말하는 Back to School 준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4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9월 5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4년 9월 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4년 9월 8일(월) - 10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시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요즘 인터넷 사이트마다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자가 된 사연이 화제입니다. 주일예배가 시작되기 전, 한 노숙자가 교회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기웃거리다. 꽤나 교회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예배에 참석 하러 온 교인들에게 그는 “배가 고프습니다. 음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돈이나 음식을 주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불과 3명만이 그에게 굶고 있는 인사를 하였고 모두 다 그를 지나쳐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 위 원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앉게 됩니다. 곧이어 사회자가 올라와서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운 담임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스티팩 목사님, 교회 영적위원과 안내위원들이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약 1시간 전부터 교회 문밖에 나가있었는데 미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셨는지요? 목사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인들 모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기대에 찬 눈길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아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모든 교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안내위원들에게, 예배위원들에게 냉대를 받고 맨 뒤로 쫓겨가 눈치 차리에 앉아 있었던 그 노숙자가 별떡 일어나 성큼성큼 강단 앞으로 걸어들어옵니다. 바로 노숙자로 변신한 스티팩 목사였습니다. 그는 강단에 서자마자 곧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내려갑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 구절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티팩 목사가 성경을 읽는 동안 교인들 중엔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팩 목사는 이날 오전, 주일예배 직전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습니 다. 그러나 제자들과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라고 물으면서,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예배) 한 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첫 부임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인수가 1만명이 넘는 대형교회에 예레미야 스티팩 목사가 노숙자가 되어 부임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찰스 웰턴의 베스트셀러로 지금껏 출판되고 있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What would Jesus do?)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필자가 신학대학 4학년 때 광성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길 건너 사강대학교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가 오셔서 특별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 인상 깊어 지금까지 내 마음 속에 새겨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저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고 헐벗고, 외로운 자의 모습으로 분장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요 형제 들입니다.” 성서신학자들은 복음서 가운데 기독교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비유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땅자의 비유요, 다른 하나는 형제 사랑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학자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10:25)로 출발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전에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고, 내일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를 넘어서서 예수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10:37). “이와같이 해야 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이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25:46). 이제 우리 모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님이 필요한 만나지는 이웃들”을 “그냥 스쳐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넓혀가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치료약 없는 에볼라 파동에 지구촌 초긴장

뉴스위크, 자연 침범하면 발생... ‘생물안전에 빨간불’ 경고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소식이 전해지며 이를 소재로 다룬 영화 ‘아웃브레이크’에 관심이 쏠렸다. 1995년 개봉한 영화 ‘아웃브레이크’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소재로 다뤘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원숭이를 숙주로 삼아 확산되고 미국 전역에 전염된다는 내용이다. ‘아웃브레이크’에서는 미국이 ‘E-1101’이라는 백신을 개발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데 성공한다.

영화 첫 장면에서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지배계급으로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위협은 바이러스다”라는 대사가 나오며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치사율 100%와 싸우게 된다. 영화 ‘아웃브레이크’

에서는 결국 미국이 ‘E-1101’이라는 백신을 만들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에 성공하지만 실제 치료법은 없는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서아프리카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1200여 명이고, 이중 66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감염자 중에는 의료진 100여 명도 포함돼 있으며, 그중 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현재까지의 에볼라 바이러스 파동과 그 대책을 상세하게 소개해준다(The Ebola Outbreak).

않을 게 거의 확실하다. 설사 그런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미할 듯하다. 에볼라를 체액을 통해서만 확산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전염성을 갖게 될 무렵엔 증상이 아주 심해져 곧바로 진료를 받게 된다(적어도 미국에선).

그러나 에볼라의 확산 관련 뉴스는 결코 그냥 묻혀버릴 수 없다. 내장이 파괴되는 동안 피를 내뿜으며 끔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악몽 같은 이미지가 우리 뇌리 속에 깊숙이 각인됐다. 에볼라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공포를 유발하는 이유가 뭘까? 그 한 가지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르면 2년 뒤에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의 하인츠 펠드만의 예측이다. 그 질병이 공황을 유발하는 만큼 많은 자금과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바람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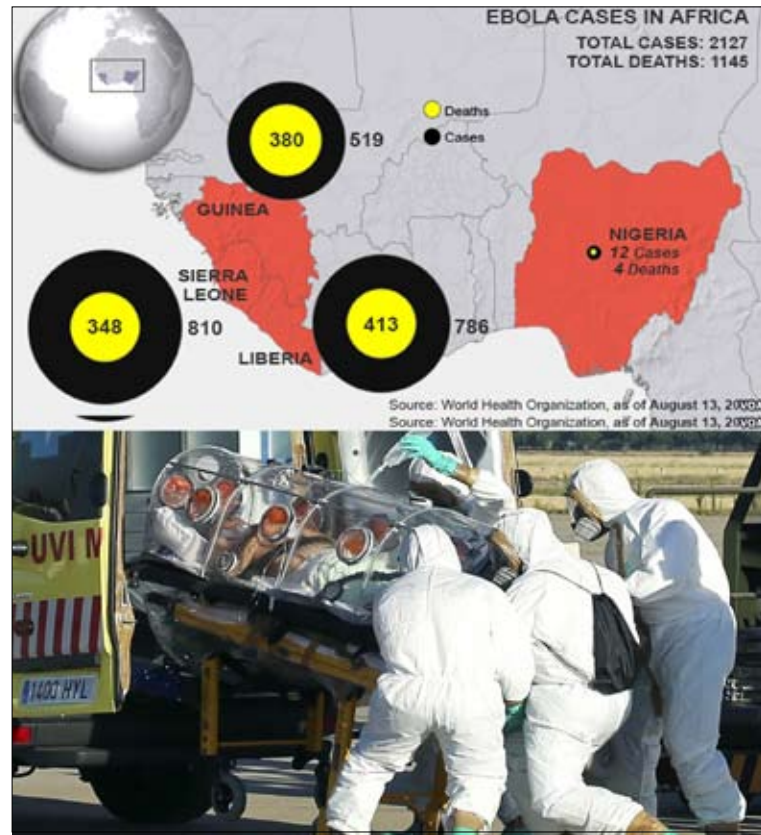
자금지원 부족은 대체로 제약회사들의 관심 결핍에서 기인한다. 제약회사 입장에선 아프리카 농촌 지역의 비교적 치사율을 낮춘 질병은 큰 돈이 되지 않는다. 2001년 탄저균 우편물 테러로 5명이 사망한 뒤에야 에볼라 연구가 약간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에볼라를 미래 테러공격의 적당한 후보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체액을 통해서만 전염될 수 있지만 “일단 걸리면 체액이 많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난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발견 지역이 에볼라강 주변이어서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약 1주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오한이 나고 심한 두통, 근육·관절통과 더불어 체온도 갑자기 올라간다. 발병 3일째에는 위장과 소장 등의 기능장애로 식욕감퇴, 설사, 구토, 설사가 난다. 발병 4-5일 내로 심한 혼수상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호흡기나 위장관에서 심한 출혈이 나타나며 보통 발병 후 8-9일째 대부분 사망한다고 알려졌다.

치사율이 최고 90%에 달해 ‘죽음의 바이러스’로 불리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서아프리카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장례의식 때 시신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3개국 감염자 1200명 중 660명 사망...의료진도 절반 사망 전세계 항공편 발달, 기후변화 따른 매개동물 이동 바이러스 확산 우려

에볼라를 한때 중앙아프리카의 삼림지대에서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천형(scourge)으로 여겨졌다. 동물 숙주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그 동물을 잡아먹는 인근 지역 공동체로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파동은 반짝 타올랐다가 곧 “사그들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국가 간 이동이 더 쉬워진 요즘엔 상황이 달라졌다. 바이러스의 발생이 농촌 마을에서 기니 해안지대에 위치한 수도 코나크리 같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대됐다. 인구 200만 명 선인 이 도시의 유행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때보다 더 빨리 멀리 퍼져나가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 패트릭 소이어(40)가 라고스에서 사망

하지 않았다면 미네소타 행 비행기에 올랐을 것이다. 그는 라이베리아를 출발해 가나, 토고를 거쳐 나이지리아 최대 도시 라고스에 착륙했다. 미국행이 이뤄졌다면 한 번에 5개국을 돈 셈이 된다. 그 노선을 따라 새로운 감염경로가 무수히 많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른 미국인 2명이 8월 초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대로 이송됐다. 특수장비를 갖춘 미국 내 4개 격리병동 중 하나와 고도의 감염병을 취급하는 특수 훈련을 받은 전문요원들이 있는 곳이다. 켄트 브랜틀리 박사와 낸시 라이트볼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건강의료 자원봉사자들이었다. 방호복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인지 에볼라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병에 걸리고 말았다.

하지만 전국 언론매체와 소셜미디어에서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브랜틀리와 라이트볼이 이 치명적인 감염병을 미국에 들여오지

배출된다.” 국제전염병연구소 산하 글로벌보건정책센터의 스티븐 모리스 소장이 말했다. 이 바이러스는 출혈열을 유발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 을 드립니다.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기독교에도 도전과 동시에 기회

(1면에서 계속)
교황청과 가까운 선교매체인 아시아뉴스의 편집국장인 베르나르도 체르베레라 신부는 “프린치스코 교황은 임기 중에 아시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아시아는 (로마가톨릭의) 미래가 걸린 지역이기 때문에 프린치스코 교황은 아시아 로마가톨릭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로마가톨릭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바티칸은 60여 년 동안 중국과 공식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필리핀처럼 로마가톨릭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도 2012년 필리핀 의회가 성교육을 권장하고 피임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면서 영향력을 잃었다.
일본에는 가톨릭 신자가 44만 명 있다. 하지만 일본인 신자보다는 브라질과 필리핀 이민자 출신 신자들이 많다. 또한 일본 로마가톨릭은 젊은 세대에 어필하지 못해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결론으로,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 중 1위, ‘타임스’ 선정 ‘2013년 ‘올해의 인물인’ 교황은, 즉위 후 로마가톨릭 쇠신의 새 방

향을 제시했고, 로마가톨릭 밖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는 그를 따라 자선을 실천하는 신자가 늘어나는 순 기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타임스가 이미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이유에서 나타난다.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프린치스코를 즉위명으로 선택한 교황이 겸손한 자세로 교회의 치유 실현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소수자들, 특히 가난한 자들 앞서 목을 낮춰 로마가톨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줬다.

년에는 35세 이상의 나이에 처음 아기를 가지는 임자들이 40년 전보다 9배 넘게 많았다. 연금기업 TIAA-CREF 시카고 사무소의 실라 구글리자는 나이가 있는 부모들은 “생명보험 가입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비용이 더 비쌀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TIAA-CREF의 50만 달러짜리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건강한 40세 남자의 경우 1년에 약 3,600달러가 들어가며, 50세인 경우 5,700달러, 60세인 경우 9,300달러가 든다. TIAA-CREF가 새로 내놓은 온라인 도구 ‘라이프 워저드’를 사용하면 자신의 생명보험 요건을 측정할 수 있다.

자녀 1명 양육비 24만 달러!

(1면에서 계속)
자폐증 관련 비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 생산성의 손실”이 한 해 1만8,720달러에 이른다. 연구를 주도한 데이비드 만델 박사에 따르면 이 수치는 자폐아동을 보살피기 위해 부모가 포기해야 하는 임금을 반영하며, 자폐아동이 있는 가정들의 최대 지출 항목 중 하나다.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이 일찍 사망하면 살아있는 배우자는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생활비, 각종 부채, 그리고 경우에 따라 대학 학비까지 마련하기 위해 애를 먹을 것이다(사립대 학비를 포함하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이 거의 5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생명보험이 그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비용도 많이 든다. 가입을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늦게 아이를 가지는 커플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2

자신을 보호하라
되서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큰 실수는 예상치 못한 배우자의 죽음에 대비하지

치료약 없는 에볼라 파동에 지구촌 초긴장

(2면에서 계속)
따라서 바이러스의 감염 인자가 파고드는 조직은 어디든 혈액이 응고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신체의 모든 구멍을 통해 피가 쏟아져 나온다.
미국은 에볼라를 가장 높은 단계의 위험도를 가진 ‘범주 A(Category A)의 잠재적 생물테러 인자로 분류했다.
그 바이러스가 생물테러 인자로 사용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수단 개발에 수백만 달러의 연방 예산이 배정됐다.
에볼라 치료제의 발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야생에서 다음 감염병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의 모색이다. 그러려면 정말로 글로벌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에볼라는 야생동물에서 처음 발생해 그 동물을 잡아먹거나 그 배설물, 오줌 또는 침과 접촉하는 사람에게로 건너편다고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설명한

다. 에볼라는 인체 감염 소강기의 수년간 특정 동물들(이른바 보균소 동물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한다. 누구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의 보균소(reservoir)로 가장 유력한 동물은 박쥐다. 최근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지역에 선 사람들이 박쥐를 잡아먹는다. 박쥐가 먹은 과일 또는 박쥐 배설물과 접촉했는지 모르는 침팬지도 먹는다.
데이비드 콰멘은 인간 유행병의 진화를 기록한 ‘동물유래 감염병(Spillover)’의 저자다. 유행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기관들이 국가적으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는 말한다. “서아프리카의 이 같은 감염병 파동을 보고 그것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다음 번 예산안 심의 때 의회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 삭감을 거론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 안 된다고 외쳐야

한다.”
결국 글로벌 항공편 발달이 질병의 확산을 위함일 정도로 용이하게 만든다.
한편 기후변화는 매개 동물들의 서식지를 재배치하며 몇몇 경우 확대하기도 한다. 이는 추후 에볼라, 신종플루, 결핵 그리고 다수 다른 질병의 유행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간들이 예전 야생의 영역으로 조금씩 더 침범해 들어감에 따라 노출 패턴이 바뀌어간다. 질병이 한층 더 강력한 버전으로 변이하거나 또는 지금껏 동물에만 국한됐던 병원균이 인체로 건너갈 가능성은 더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다.
“문제는 ‘다음 번 큰 놈’이 과연 등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가 등장할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울지, 그리고 얼마나 큰 희생을 초래할 것이냐는 점”이라고 콰멘이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마지막 시대에 꼭 들어맞는 예측이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마침내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한 주간 목살을 앓았다고 한 언론이 표현했을 만큼 교황 방문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제가 선교사로 섬겼던 아르헨티나 출신이라 그런지 제 개인적으로는 더 관심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 방문 중에 보여주었던 교황의 상징적인 행동이나 제스처보다는 그가 여러 집회에서 행한 강론과 연설의 내용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내용이 다 성경적이고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급변 교황의 한국 방문은 카톨릭교회가 안고 있는 비성경적인 전통들과 신학적인 이슈들은 점교라도, 일반 국민에게는 카톨릭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쏟아내는 교황 방문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우리 개신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생각을 떨

교회 내에 일어났던 첫 번째 문제는 아니냐고 부부들과 같은 개인주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겨난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의 구제문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분당은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을 계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서신을 보면 개인주의와 파당을 짓는 이 두 가지 문제는 항상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1장부터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언급했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파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심각하게 다루었던 이 문제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로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것은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해야 한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이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차 선교사역을 마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힘을 모아 유대의 기근을 당한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 가운데는 적어도 일곱명이 넘는 아시아와 마게도냐 이

특고칼럼

프란시스코 교황 방문이 준 도전

박신욱 목사 (미주복음방송 사장)



칠 수가 없었습니다. 2천년전 초대교회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처럼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신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선행과 세상에 본이 되는 사역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만 언론을 통해 회자되면서 한국 사회는 개신교에 등을 돌리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사회통념의 잣대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상이 고운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 것은 무언가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음으로 생겨난 결과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 다하지 못한 사명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들어보려면, 그것은 개인주의와 파당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가진 것을 유무상통하는 인류 초유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전하고, 공동체로서 성도사회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 문제를 지역적으로 확대해본다면, 개교회주의와 교단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개교회주의의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커뮤니티의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진정성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아니냐 부부와 같이 전신성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저는 적은 장학금이라도 때마다 지역의 가까운 공립 학교에 위탁해서 정말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면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사회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약한 사람을 돕는 사역은 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과부를 돌보고, 기근을 당한 형제들에게 연보를 거두어 구제

방인교회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교회에 전달할 이방인교회가 모은 거액의 연보를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들을 위한 선교가 교회가 연합하여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이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은 감동하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신학적인 문제로 교단이 분립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신교 인구의 75%가 되는 한국 장로교 교단의 수가 250개가 넘는다고 하는 오늘의 현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음방송을 통해 가끔 방송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아침 어둡고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나 자신부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우리 이민교회로부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

쉐퍼드대학교 학생모집

“축” 쉐퍼드대학교 ATS 정회원 인준

ATS란?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풀러, 말뚝, 아주사 퍼시픽, 클레어몬트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북미지역 및 캐나다의 신학대학원들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학력인준기관입니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ATS 정회원 학교로 유명 신학교들로의 편입, 진학, 학점교류 및 동일한 학위 인정이 가능합니다.

쉐퍼드대학교는 WASC 뿐만 아니라 ACICS 및 ATS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온라인 통신 과정 개설
동시 통역 강의

왜 쉐퍼드 신학대학인가?

- 1 ATS, WASC, ACICS 인준을 통하여 타 명문 “일반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 2 WORLD CLASS급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합니다.
- 3 한국어, 영어 Track 수업과 동시 통역 수업으로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 4 종합대학으로서 음악대, IT대 등 타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5 목회, 성적, 근로, 가족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 6 군목, 여성목사 안수, 음악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 설교전문가양성과 행동적 영성 훈련을 통하여 성공적 목회를 가능케 합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원로 학장

찰스 크래프트 박사

BABS (신학 학사)	127 학점
M.Div (목회학 석사)	97 학점
D.Min (목회학 박사)	42 학점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Ext. 8231 (크리스탈 김)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양심을 지킵시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억울하게 체포당했다. 자주빛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근엄하게 앉아있는 야그릿바왕과 진홍색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훈장들을 달고 앉아있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옆에 많은 고관들이 꼭 배석해있는데 죄수복을 입고 쇠사슬에 묶인 바울이 그 앞에서 서서 재판 받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고 도리

어 당당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있는 많은 고관들에게 전도할까?'하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문을 받으면서도 틈만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보았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당당하게 설명해주려고 한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별책 일어

나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야그릿바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을 압니다'하고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야그릿바왕이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하느냐?"하는 말로 완곡하게 거절한다. 이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은 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라님께 원하나이다 하니." 앞에 왕이 앉아있고 총독이 앉아있고 고관들이 위엄 있는 자세로 앉아있지만 그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더 행복하다는 바울의 글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자기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소리를 거부한 적이 없고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거리킬 것이 없다. 양심 앞에 떳떳하

다는 말이다. 진실은 언제나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1614년 옥중에서 '세계사'라는 책을 쓴 영국의 월터 롤리경이란 분은 투옥된 그 죄목은 국가내란음모죄였는데 엘리자베스 1세 때는 국가에 공을 세워 나이트 작위를 서임 받았던 분으로 군인이며 탐험가였다. 옳은 일에는 항상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다. 그런데 1616년 출옥한 후에 탐험으로 생애를 보내다가 다시 투옥되어 처형됐다. 사형 집행 전 집행관이 "좀 편히 죽기를 원하면 이 단두대 위치를 교정시켜 주겠다"고 하자 그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친구여, 양심만 바로 놓여있다면 머리를 어떻게 놓든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했단다. 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이성과 종교성 그리고 양심 이 3가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성을 주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

나 사물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오늘의 과학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사고능력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 놓은 축복이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종교성을 주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인간의 정신문명은 바로 이 종교성이 이루어놓은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선과 악을 마음으로부터 식별하면서 살아간다. 오늘날 모든 도덕이나 윤리의식 같은 민주주의의 질서는 이 양심이 이루어놓은 결과이다. 인간에게 이성과 종교성 또 양심이 없다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인간다움이란 바로 하나님이 태어날 때 사람에게만 주신 이 세 가지, 이성과 종교성과 양심에서 나온 것이다.
보라! 사람마다 양심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요즘은 그 양심이 없는 사

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양심없는 사람이 도리어 바보로 통하는 사회에서 산다. 그러나 재물이 많이 있어도 양심과 신의를 잃어버렸다면 사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그런데 믿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다. 진실을 잃어버렸다. 양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다. 자기 양심을 버리면 당당함도 마음의 긍지도 없다.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그 신앙이 파선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 성도의 긍지는 언제나 양심과 함께 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내 양심 앞에 자유로워야한다. 이만생활이 아무리 험악해 갈지라도 끝까지 양심을 지켜서 그 속에 긍지를 품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자.

푸/른/초/장

노기송 목사
(뉴욕새예루살렘교회)



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어느 인간에도 열광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바로선 성도는 교황이든, 이순신이든 어느 한 인간에게 정성없이 빠져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직 예수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참으며 자기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쉽게 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의 경주의 대상이 내 자신도 아니요, 어떤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세상 어느 것도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다음 구절 2절에서 설명해

다.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우리가 못 참을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그 어떤 부끄러움도 능히 참고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하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님만 바라보게 될까요?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크고 작은 죄, 실수, 허물, 죄악들을 예수님 앞에 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즉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외에 열광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 외에 바라보았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짐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 말씀이 없습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인생의 경주를 내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주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실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뒤에 오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을 생각하시며 그 고통과 처참과 괴로움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죄를 용서받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그 모습을 보시며 즐겁고 기쁘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겪는 심한 부끄러움도 참으셨습니

결론
이제 왜 이번에 천주교 교황과 이순신 장군의 명량 영화 한편에 온 국민들이 열광하며 났을 났을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기준인 성경 말씀의 부재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안 바라볼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우리 영적으로 깊은 성도들이나 이해할 말씀이지, 믿음이 없는 세상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즉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둬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우리와 다릅니다. 자기들이 교황이나 명량 영화 한 편에 열광하는 것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행동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우리 기독교회와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9면으로 계속)

에서 웨체스터 지역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첫날 첫 방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릴 적 보았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일수록, 확실한 삶의 기준과 확실한 지도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기준은 성경 말

입니다. 첫째, 요즘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며 바라볼 지도자, 히어로(영웅)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백성들의 마음에 삶의 기준이 되는 기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회나 정치나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의 불행과 거짓과 속임수에 이제 백성들은 모두가 식상해 있고,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그리고 아무 기준 없이 이것저것에 열광하는 개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니다. 성경 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그 외의 다른 것을 찾거나,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열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열광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웅이시요, 열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 교황이 있으며,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살아서 하늘 나라에 간 기록이 있으며, 연옥이 있으며, 면죄부가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에 사람이 의인을 만들고 성자를 만드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는 하

본론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습니다**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세상은 젊음을 숭상한다. 젊음은 힘이고 젊음은 이상이다. 현대는 젊음 중심의 사회이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다. 경로석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나이드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풍조는 더 심해진다. 한국사회는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많은데 제한된 직장 때문에 한참 일해야 할 나이에 은퇴를 강요당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사회적 고동이 더하고 있다. 나이가 드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나이가 들면 썩는 사람도 없다. 젊어야 상품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노화의 과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시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의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은 나이 어린 사무엘도 부르시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마다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되었고, 노이는 6백세에 방주를 짓는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80세에, 여호수아도 80대에 부르심을 받는다. 갈렙은 85세 때에 난공불락의 헤브론 정복전쟁을 도전한다. 나이 많은 스가랴를 통해서 세례요한이 오게 하신다. 또한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계속 쓰

고통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인내할 능력을 주신다(벧전4:1-2; 골1:24; 벧전4:19). 3)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 주신다(롬8:38-39). 그래서 노년의 생활은 후회와 상처로 무너지는 생활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황금기이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고통이 동반된다. Stephen Sapp은 그의 글 "Ag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oss"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나이가 드는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손실에 대한 고통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 십자가의 제자도는 나이가 드는 것과 같은 매우 일상적인 고통에 대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게 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만성 질환이다. 관절염과 각종 인체 장기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젊었을 때 느끼지 못한 고통이 동반하게 된다. Robert Rakestraw는 "When Suffering

식을 즐김의 생활로 묘사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쉬면서 즐기는 인생을 위한 준비를 강조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간을 영적인 성숙과 갱신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인생의 여정에서 주신 영적인 부유함을 추수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퇴 후에 인생이 옛날보다 더 많은 날들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활동적인 기간이 지나고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연금이나 물질적인 준비보다도 어떻게 의미 있는 남은 생애를 사는가를 고민하고 준비함이 있어야 한다. 사실 그렇다. 인생의 황혼기에 부름을 받아서 멋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산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보면서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도 인격도 지혜도 성숙해진다. 경험이 많아서 원숙하고 안정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귀한 은혜와 축이 있는데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노인 시대의 준비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사람들은 젊게 보이기 위해서 나이를 감추고, 머리의 염색은 기본이고, 젊음을 유지하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한 수술도 한다. 하지만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니 나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모든 영역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노인층이 점점 더 큰 정치적인 파워를 가진다. 노인층 위한 사업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 노인 관계된 산업은 미래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성공이 보장된 투자영역 중에 하나이다.

우리의 문화는 나이 드는 것을 싫어하고 나이 드는 것을 저지하고자 한다. 물론 나이 드는 것을 달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잘 감당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나이 드는 것을 막거나, 연기하거나, 부인하거나, 통제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잘 받아들이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 현재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연령층은 85세 이상의 연령층이다. 한국 여성의 평균연령은 84세로 남자보다 7년이나 더 높다. 평균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10년을 더 산다. 노인층이 증가함으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와 관계된 이슈들의 변화는 매우 심각하다. 이미 예견된 것 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다가오는 사회적 구조변화에 정책 결정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당황스러워 한다.

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

나이가 드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인생의 한 부분이다. 아니 복된 것이다. 젊은 나이에 생명이 끊기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은혜이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아름다운이다(잠16:31; 20:29). 우리의 인생은 짧다(약4:14). 우리의 젊음의 아름다운은 쉽게 사라진다(잠31:30; 벧전1:24).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도덕적 삶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이다(신5:33). 나이가 드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이다(창25:8). 장수는 효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신다(출20:12; 엡6:1). 따라서 장수하는 노년층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잠3:13; 15-16; 9:10-11). 젊은 사람들에게 대한 지혜의 권면은 나이드는 사람의 의무이다(요엘1:2-3; 신32:7). 따라서 장수자는 지속적인 도덕적인 삶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은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들이 생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에게 은총을 보장하신다. 1)임재의 약속을 해주셨다(사46:3-4). 2)하나님께서서

Continue"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만성질환의 고통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만성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우리는 치유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약5:13-16). 하지만 하나님 이 어떤 응답을 하실지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맡겨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다. Robert Roberts는 "Declining with Grace"에서 약해지는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포용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바울은 '약할 때가 강함'을 증언한다(고후12:9). 성도는 약할 때에 주님께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기회가 된다. 나이가 들면서 약함을 경험하는 시간은 도리어 우리가 감사와 관용을 경험하고 베푸는 기간이 될 수 있다. 성도에게는 약함이 약함이 아니다. 우리가 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의하여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기 때문이다. 도리어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 받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쓰임 받아야 한다. Beth Jackson Jordan은 "God's Call in Later Life"에서 나이가 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세상은 은퇴 후의 삶은 여가와 휴

면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젊은이들은 장수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장수한 사람은 친절과 존경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딤후5:1-2; 레19:32; 전23:22). 2)가족들은 자신의 장수한 가족 식구를 돌볼 책임이 있다(딤후5:8). 3)교회는 장수한 분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딤후5:16).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성경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늙기를 원하신다(욥12:12; 시71:17-18). 2)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늙기를 원하신다(잠16:31; 고후5:15; 갈2:20). 3)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늙기를 원하신다(눅2:37). 4)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늙기를 원하신다(사46:4).

나이 많았던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맞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다. 재림 준비의 모델이다. 나이 많은 젊은이 갈렙의 용기는 언제나 감동이다. 나도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쓰임을 받은 모세의 모습을 누리고 싶다.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야말로 백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노년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저는 과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생활과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현재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아 가끔 과거가 생각나면 흥분이 되고 분노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 받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플러튼에서 Kim

A: 한국인은 상처가 많은 민족이어서 그런지 피상담자의 질문처럼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물어보면 '옛날에 나갔던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이 사람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이민 초기에 한번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다시 재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러나 조지 마셜 장군의 고백처럼 '끝난 일은 끝난 것이다. 당신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기를여야 합니다.

한홍 목사가 쓴 '시간의 마스터'라는 책을 보면 과거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방법을 몇 가지도 말합니다. 첫째로, 과거에 지난날의 상처가 있다면 그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도망가지 말

과거 상처는 돌아보지 말고 미래의 비전 세워야

고 간혹 사람들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더라도 상처받지 말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주신 것처럼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들을 연락해 만날 수 있다면 직접 만나서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지만 실천하면 신비한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자신 뿐 아니라 나의 자손의 미래에 까지 먹구름이 번져 갑니다. 셋째로 축제를 벌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자신의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3장에서 과감하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Forgetting what is behind).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의해 나의 삶이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지워버리려고 노력해서도 잘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집중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상처는 비전을 붙잡을 때 자연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지속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유대인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독일인을 지금 이 순간부터 용서하고 그 어떤 악한 감정을 품지말자 이걸 독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자신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미래는 남을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강대국일수록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작업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지 않으면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13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2명: 각\$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 (2페이지 이하)
3.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4년 10월 15일
수여자 발표 2014년 12월 1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 847-359-5200 F. 847-359-8409

낮선 땅에서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는 한국인, 당신을 위한...

유학생 위로의 밤

일시: 2014년 9월 5일 (금요일) 오후 5시
장소: 엘피스교회
2400 N. Canal St. Orange, CA 92865
문의/접수: (949) 769 - 4337
(714) 287 - 2854
대상: 남가주거주 한인 유학생 (Elementary~Ph.D)

- * 저녁식사 제공
- * 상품 추천 순서 (iPad Mini 외 다수) 있습니다.
- * 8월 31일까지 사전 접수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데하티(Dehati)



인도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사회적,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단일 부족그룹을 적절하게 묘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져 9억3천5백만 이상이 살고 있다. 인구밀도는 1평방마일 안에 약762명

이 살고 있다. 인도는 크게 네 지역으로 분류한다: 히말라야, 북부 강과 평야 지역, 대칸 평원, 그리고 동서갈 산맥 지역이다. 수많은 지리적 형태와 계절과 지역에 따른 기후조건이 매우 다양하고, 열대기후에서 극한적인 온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복잡성 가운데 3만7천여 데하티족이 존재한다. 그들은 비하르와 오리사 주에 주로 거주하며 언어는 인도-아리안(Indo-Aryan)어에 속한 데하티 마이티어(Dehati Maithili)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독특한 삶의 모습과 문화는 별

로 알려지지 않았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약73%는 시골에서 살며 농업 일에 종사하고 있다. 수많은 농부들은 겨우 생계만 연명할 정도의 극빈상태로 살고 있다. 이들은 매우 적은 농토에서 매우 불안정한 삶을 누리고, 특히 쌀 가진 가족, 들소, 말, 그리고 당나귀 같은 가족사육이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힌두교의 영향으로 이러한 동물들의 식용 사용이 배제되고 오히려 짐스러운 짐승에 불과하다.

인도 문화의 중심은 힌두사상이다. 많은 힌두사원들이 있고, 인도 사회에 광범하게 영향을 주는 카스트(사회계급)제도가 포함된다. 카스트란 언어적 뜻은 혈통, 종족, 종류의 의미를 갖는다. 인도사회는 계층제의 카스트로 분류되어 대개

“동류혼례”(동일한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만 허용된다. 카스트는 직업과 혈통과 족보에 의해 정의된다. 물론 약간의 예외는 있음에도 카스트는 인도의 사회구조에서 근본이 되어 거의 모든 분야에 반영하고 있다.

카스트제도에 입각해 데하티 족에 관한 것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데하티족의 많은 사람들이 비하르(Bihar)에서 농사일로 생활하고 있다. 주 농산물은 보리, 옥수수, 벼, 사탕수수, 밀을 재배한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이 지역의 타종족과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데하티족의 복음화를 위해 이들의 삶의 모습을 좀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신앙

데하티족의 95%는 힌두교 신자들이고 힌두문화와 전통을 따르고 있다. 힌두교란 용어가 사용된 것

은 기원후 약 1200년경이다. 그러나 힌두교의 신앙은 무엇인가는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힌두교의 창시자나 선지자도 없고 교리도 없다. 종교학문보다는 삶의 방법이며 철학적이다. 서양의 대중적인 신앙과는 상반되고, 조상이 없고, 신앙 체계에 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관습이고 행위이다. 힌두신앙은 몇백년마다 중요한 변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힌두교 신자들은 대부분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다. 어떤 신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 오직 채식만 한다. 반면 어떤 자들은 사원에 제물로 드린 고기를 기본 좋게 먹는다. 어떤 자들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인간적인 반면 어떤 자들에게는 비인간적이다. 대개의 힌두교도들은 브라만(Brahman 창조주), 쉬바(Shiva 파괴자), 비수누(Vishnu 보존자), 그리고 여신 샵

트리(Shakti)를 숭배한다. 또한 만신전(Pantheon 국가적 영광을 입은 사람들의 무덤, 기념비가 있는 곳)의 소신(minor gods)들을 숭배한다. 그리고 만신전의 화신(in-carnation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남), 배우자, 자손들을 숭배한다. 환생(계속적인 주기로 죽음과 동시 탄생)을 믿는 것은 몇 안 되는 힌두교 통일성의 면모중 하나다.

필요로 하는 것들

데하티 족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는 전혀 부족하다. 성경과 예수영화 그리고 기독교방송이 아직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아주 적은 무리의 데하티 족의 성도에게 기독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비인간적이다. 대개의 힌두교도들은 브라만(Brahman 창조주), 쉬바(Shiva 파괴자), 비수누(Vishnu 보존자), 그리고 여신 샵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내 한인기독교인 한국의 2.5배

미국내 한인 기독교 신자 비율이 한국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을 앞둔 12일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한국의 성장하는 기독교 인구에 대한 6가지 사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가운데 기독교 신자의 비율은 71%로 한국 내 기독교 신자 비율 29%의 2.5배에 달했다. 한인 10명중 7명이 교회사 성당을 다닌다는 뜻이다. 한인 기독교인 중 61%는 개신교인이고 10%는 가톨릭 신자였다. 불교 신자는 6%,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23%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46%로 가장 많았다. 29%의 기독교인 가운데 개신교 신자가 18%였으며 가톨릭 신자가 11%였다. 보고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전세계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은 개신교회라고 소개했다. 또 기독교인의 비율은 지난 1950년 8%에서 2010년 29%로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불교 신자는 23%로 기독교인에 못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신교 신자만 비교할 경우 그 비율은 한국인이 한국인의 3배 이상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내 한인 불교 신자 비율은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가톨릭 신자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들의 86%가 호감을 표명해 66%가 호감을 표명한 미국 국민보다 호감도가 훨씬 높았다. 다만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85%가 교황에 호감을 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내 종교의 자유 보장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특히 종교 기관에 대한 정부 제재가 미국보다도 낮다고 분석했다.

각 종교에 대한 일반 여론의 적대감 지수를 10점 만점으로 볼 때 한국은 0.3으로 거부감이 거의 없었다.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 평균치(2.9)는 물론이고 미국의 1.9보다도 낮았다. 종교에 대한 정부 제재 지수 또한 한

국은 1.8점으로 미국(3.7점)의 절반에 그쳐 신앙의 자유가 더 보장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교·가톨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무신론자라고 설명했다.

미 폭인 총격 사망 목회자들이 시위 주도

미 폭인 총격 사망 목회자들이 시위 주도

미국 목회자들이 경찰 총격으로 10대 폭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폭인 인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는 ‘마이클 브라운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끌고 있다고 미국 방송 NBC가 17일 보도했다. 샤프턴 목사는 이날 미주리주 퍼거슨시 그레이터그레이스교회에서 “이 사건은 미국 치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정의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지난 9일 친구들과 퍼거슨시의 한 편의점에서 나오던 도중 경찰의 수차례 총격으로 사망해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샤프턴 목사는 “경찰이 총격 사건과 무관한 절도 장면을 공개한 것은 고인을 인신공격한 것”이라며 퍼거슨시 경찰서장을 비판했다. 이날 시위에는 고(故)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아들 킹 3세를 포함한 시민 수천명이 참가했다. 앞서 샤프턴 목사는 ‘손을 들었으니 쏘지 말라’는 뜻으로 두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암스 업(Arms up)’ 운동을 제안했다.

미국의 한 감리교회 여성 목회자인 레니타 램프 목사는 지난 13일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을 막으려다 경찰이 쏜 고무탄을 맞았다. 목회자들은 “평화 시위를 요구한 것뿐인데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며 피명 자국이 선명한 복부 사진을 인터넷에 퍼트리고 있다. 램프 목사는 “경찰이 아닌 사회 시스템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퍼거슨시 웰스프링교회의 윌리엄 존슨 목사는 이번 사건을 “인종이 아닌 인간에 대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타겟, 애플, 나이키에 이어 동성결혼 지지

대형 소매점 타겟(Target)이 5일 법정에서 동성애 지지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타겟은 앞서 다른 대형 회사들이 결혼 평등성 지지 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시카고 연방항소법원(federal appeals court) 앞에서 법정외견서(amicus brief)에 서명하며 결혼 평등성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타겟의 부사장이자 최고인력담당인원(Chief of human resources officer)인 조디 코즐락(Jodee Kozlak)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법 아래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여기에는 결혼과 관련해 개인들에게 이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고 믿는다”고 타겟의 공식 블로그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타겟은 법정에서 동성결혼 지지의사를 공식화 한 애플, 나이키,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 동참했다.

미국 내 약 1,800개 지점을 운영하며 전세계 36만 명의 직원을 자랑하는 타겟은 최근 동성결혼에 대해 중립을 지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2년 타겟의 본사가 위치한 미네소타에서 결혼평등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타겟은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당시 타겟의 대변인은 “우리는 미네소타의 결혼 개정에 있어 광범위한 관점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타겟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법정외견서는 사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해 우리 견해를 좀더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데 지금이 적기라는 데 동의한다.” 타겟은 동성애자 직원들에게 “오랫동안 이해할 만하고 (다른 회사에) 뒤지지 않는 편익(benefits)을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4년 동성애자 직원에게 영향을 주는 기업 정책을 바탕으로 점수를 내는 ‘인권 캠페인 기업평등지수(Human Rights Campaign Corporate Equality Index)’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파키스탄, 1년간 박해 사망 기독교인 128명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과거보다 더

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지난해 128명의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폭력으로 사망했다. 종교적 박해로 사망한 이들이 2012년 6월부터 1년 동안 7명이었는데, 2013년 6월부터 1년간은 128명이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9월 올세인트교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119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탈레반과 연결된 극단주의 무슬림 단체가 이 같은 테러를 일으켰다. 보고서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파키스탄 정부가 연방·주·지역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테러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러 “공격은 일반적인 폭력 사건의 정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종교적 자유는 전체적·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종교단체들을 상대로 한 공격과 관련하여, 파키스탄 정부는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붙잡거나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올해 8위를 차지했다. 앞서 파키스탄의 ‘연대와 평화를 위한 운동’(이하 MSP)은 ‘공동체의 강제 결혼과 강제 개종’ 관련 보고서에서 “남자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지만, 가해자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납치된 기독교 여성을 대신하여 다른 경찰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그녀의 결혼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녀는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므로 그녀의 부모는 지금 불법적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납치된 기독교 여성들이 직면하는 것은 ‘성폭력, 강간, 매춘, 인신매매, 또 다른 가정폭력’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이들과 이들 가정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

약 1억 8,500만명의 파키스탄 인구 중에서 95%가 무슬림(주로 수니파)이며, 그 중 크리스천은 2% 정도다. MSP는 하자라(Hazara) 공동체를 대표하는데,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의 투르크 인종 집단이며, 아시아 무슬림으로 추측된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기간 2014년 8월 21일(목, 저녁) ~ 9월 4일(목, 저녁)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 2014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2월 ~ 15일 우리들교회(김종명목사)
1일 ~ 9일 갈멜산기도원 신학박 기도성회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평화의 동산 기도회(김종명목사) 19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전교회 (지동근목사)
10일 ~ 12일 침례종교개혁(김종명목사) 21일 ~ 23일 LA 베이커스빌드 한인장로교회 (한재신목사)
13일 오산의 최자살기념 금식기도회 28일 신학성 열매 기도회(GST)

2

3일 ~ 6일 GST 33r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7일 ~ 19일 영인 신세계교회(윤종우목사) 14일 성일교회(원영우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빌드 한인장로교회 (한재신목사)
22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전교회 (지동근목사)

3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14일 성일교회(원영우목사) 17일 ~ 19일 발인 사랑교회(서(영목사)
23일 ~ 28일 동은교회(이동훈목사) 30일 신학성 열매 기도회(GST)

4

3일 캄넨대학교·대학원 재물 7일 ~ 9일 목동교회(최희환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20일 ~ 23일 신명교회(김진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희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19일 ~ 22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25일 신학성 열매 기도회(GST)
26일 ~ 28일 하블버전교회(오영복목사)

6

8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경명목사) 15일 주류교회(최희환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드림교회(김여홍·수이목사) 19일 ~ 20일 영인교회(정영호목사)
27일 신학성 열매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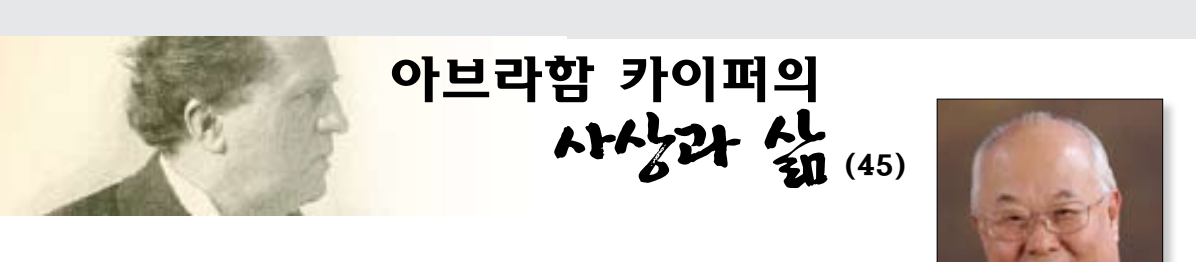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빌드 정전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드림교회(김여홍·수이목사) 17일 영인교회(정영호목사)
27일 신학성 열매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8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김종명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영인교회(정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오병이교회(김경명목사)
28일 신학성 열매 기도회(GST)

9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국)
13일 ~ 16일 열매이머 시종교회(최희환목사) 17일 영인교회(정영호목사)
21일 ~ 23일 오병이교회(김경명목사) 28일 신학성 열매 기도회(GST)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5)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카이퍼의 노동법 제정을 위한 투쟁

카이퍼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당시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눈에 가지였다. 그들의 관심은 전통적으로 지켜온 체제를 유지하고 기독교를 사수하고 개인의 이익이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대의 목사요 교수 출신인 카이퍼가 나타나 날마다 일간지와 주간지에 논설과 평론을 쓰고, 대중들에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설교와 연설로서 떠오르는 대안이 된 그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에게 희망을 보았고 꿈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세속화된 화란 교회에 16세기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부흥시켜,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의 불같은 의지는 대중들에게 힘 있게 다가갔다.

1874년 11월 28일에도 카이퍼 박사는 국회에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기념비적인 연설을 했다. 카이퍼는 그날 연설을 통해서 노동법(Wetboek van den Arbeid)의 제정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무역과 상업과 함께 다루어 질수 있는

실제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의 법안은 처음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카이퍼의 노동법 법률안 제안에 왕립협회는 비상이 걸렸다. 그들은 카이퍼의 뜻에 반대되는 교수와 법률가로 위원회를 만들고 비밀회의를 소집해서 전략을 짜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입법안은 난센스로 규정했다. 그들은 노동법 제정 자체가 기독교의 위협으로 받아졌고 항명으로 이해되었다.

그 당시의 내각이나 국회의원들도 카이퍼의 의견에 동조자가 없었다. 사람들은 노동법 제정 자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언론은 더욱 심하게 카이퍼에게 비우호적이었다. 신문들은 그 생각을 발표했던 신사가 스스로 그와 같은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를 비아

냥겨웠다. 그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신문은 그를 '불장난 하는 자'로 매도했고, 또 다른 신문은 노동자에게 이념을 주입시키는 암스테르담의 선동적 설교자라고 욕했다. 하지만 카이퍼는 정치권과 언론의 집

중 포화를 맞고서도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1874년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였다. 카이퍼는 167센티의 작달막한 키에 딱 벌어진 어깨와 그 우렁찬 음성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이 시작하였다. 카이퍼는 포켓용 성경을 펴들고 그가 평소 애용하던 성경을 낭독하는 식으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강력한 고소 부분의 성경을 읽었다.

"들으라 부한 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

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발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약 5:1-5).

카이퍼의 굵직한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운율적인 성경낭독은 국회의사당 내부를 압도했다. 카이퍼는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오늘날 귀담아 들어야 할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는 노동자의 임금을 때어 먹고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였다. 카이퍼가 성경봉

파가 화란 국가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보다는 카이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곧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어떤 주제를 택하던 그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웅장한 연설과 칼끝처럼 예리한 논리적 싸움, 그리고 그의 일간지와 주간지에 쏟아 내는 그의 필력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였는지 카이퍼의 연설에 동의를 표하는 의원도 있었다. 그는 후일 수상의 자리에 오른 험스켈크(Heemskerck)의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카이퍼를 위협한 인물로 경계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았다.

만약 카이퍼가 목사로서 목회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런데 카이퍼의 사회개혁의 이론은 단순히 제도적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변화 이전에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했다. 즉 인간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좋은 예가 1875년은 선거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영국으로 갔다. 그 이유는 영국 브링톤에서 그 당시 미국의 최고 부흥사인 D. L. 무디(Dwight L. Moody)의 대형 전도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무디는 당시 복음성가의 탁월한 찬양자인 쉐키(Ira D. Sankey)와 대전도운동의 기획자인 스미스(R.P.Smith)를 대동했다.

카이퍼는 이 집회에 초청을 받고 만사를 제쳐놓고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참석해서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 카이퍼는 목사나 교수나 국회의원 같은 직책을 접어두고 오직 은혜를 받는 일에 열심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유럽 특히 당시 화란의 합리주의 사상, 현대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진실로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리라고 믿었다. 사회가 먼저나 영적인 것이 먼저나 라고 할 때 카이퍼는 영적인 것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이퍼는 이 집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다. 그 후 그는 여러 번 헤라우트지에 무디 부흥회에 참석하고 받은바 은혜를 글로 썼다. 카이퍼의 노동법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되었지만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호에 계속)

1874년 11월28일 사회경제관련 기념비적 국회연설서 성경낭독 합리주의 현대주의 만연 화란에 영적 변화 주장...무디집회 참석

독을 다하고 난 다음 국회 본회의장은 카이퍼의 반대자들에 의해서 미처 날뛰게 했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 신음소리, 양심에 찔리어 어쩔 줄 모르는 의원들, 그리고 온갖 욕설이 난무했다.

그 당시의 환경은 사회적 경제적 사상적으로 너무나 황폐했던 때였기에, 나라를 살리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카이퍼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사회적 책임감, 노동계급에 대한 동정심, 보통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카이

만 전념했다면 그는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터이지만, 역시 정치 현장은 냉혹했고 반대당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통치하고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기에 흔들림이 없이 그의 주장을 밀고나갔다. 그러면서 카이퍼는 상대 정당의 의원들에게 개인 사생활 문제나 성경 또는 그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철저히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과 정책, 방법에 대해서는

만 전념했다면 그는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터이지만, 역시 정치 현장은 냉혹했고 반대당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통치하고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기에 흔들림이 없이 그의 주장을 밀고나갔다. 그러면서 카이퍼는 상대 정당의 의원들에게 개인 사생활 문제나 성경 또는 그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철저히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과 정책, 방법에 대해서는

만 전념했다면 그는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터이지만, 역시 정치 현장은 냉혹했고 반대당의 집요한 공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퍼는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통치하고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할 것을 확신하기에 흔들림이 없이 그의 주장을 밀고나갔다. 그러면서 카이퍼는 상대 정당의 의원들에게 개인 사생활 문제나 성경 또는 그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철저히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과 정책, 방법에 대해서는

칼럼 음악목회 (34)

또 하나의 지휘자 (5)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교회음악을 통솔하는 음악목사나 찬양대 지휘자 또는 경배찬양 인도자 외에 교회음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 분은 곧 음향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와 영상상을 담당하는 PD 또는 미디어 디렉터입니다. 그 분들의 역할의 중요성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지난번 글에서 4회에 걸쳐 구체적으로 열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훨씬 교회음악에 영향력을 가진 분이 또 있는데 그 분은 바로 담임목사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처럼 노래방이 동네마다 세워진 나라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을 것입

니다. 농촌 어촌 산촌 같은 시골에도 노래방이 있습니다. 식구대로 할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모두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른이나 아이나 마이크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른이나 어린이나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마다 각 부서마다 찬양경배팀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마이크에 대고 노래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임목사님입니다.

대체로 목사님들이 음성이 좋고

찬양을 잘하십니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것을 더욱 즐겨하십니다. 때로는 감정까지 섞인 음성으로 열창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기 위해 선창을 불러 예배 분위기를 영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선창도 마음대로 하시고 찬양곡도 마음대로 편곡하시고 곡의 템포나 조성도 마음대로 결정하여 부르십니다. 반주자들과 찬양인도자와 지휘자는 무조건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담임목사님의 노래가 음정이 맞지 않고 박자도 틀리기도 하는데 담임목사 본인에게 모두가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는 것입니다. 물론 음악을 전공하셨거나 특히 성악을 전공하신 목사님들께서는 누구보다 찬양을 잘 부르시고 잘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담임목사의 역할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의 헌신과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지성소에서 시온과 위에 임재하셨듯이 오늘날도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오직 영적권위를 부여받은 담임목사가 설교와 축복기도와 목회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중요한 담임목사의 역할이 따로 주어져 있는데 예배서 음악목회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인을 세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더욱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이나 목회방향에 따라 음악 프로그램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절기에 찬양

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리즈 음악을 담임목사의 기본대로 부분적으로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음악에 있어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또는 Mass 같은 곡은 중간을 마음대로 잘라버리면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구나 음악적으로도 작품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담임목사님들께서 음악의 작품을 해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설로서 너무 완벽한 작품을 다른 장르로 각색을 하고자 할 때, 작품이 손상된다면 양식 있는 사람은 그 작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천로역정' 같은 위대한 작품을 지나간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로 각색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영화감독도 작곡자도 시나리오 작가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소설로서 그 가치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고 소설로 남겨 둔 것처럼 여겨온 오라토리오의 대명

사 헨델의 메시아가 혼성4부 합창과 독창곡들과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작곡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간 27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작곡가나 편곡자들이 이 곡을 합부로 뜯어 고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작품이 손상이 가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위대한 곡을 여성 합창곡으로 편곡했다면 대단한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메시아 합창은 대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혼성합창곡을 여성합창곡으로 바꾼다면 대위법이 깨어지고 마치 돌린 노래처럼 되어버려 작품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님들께서 음악이나 문학이나 예술을 잘 모르신다고 해도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지고하시기 때문에 작품의 역사성이나 예술성이나 작품성에 대한 손상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음악이 예배나 목회에 시너지가 아니라 귀하게 쓰여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가치 있는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마가 카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드라마처럼 전개한 최초의 장편소설 의도를 찾아가는 일주일간의 기억된 기록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의 발자취를 문학적 상상력과 영적 교훈으로 새롭게 써 내려간 책이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맺어지는 해피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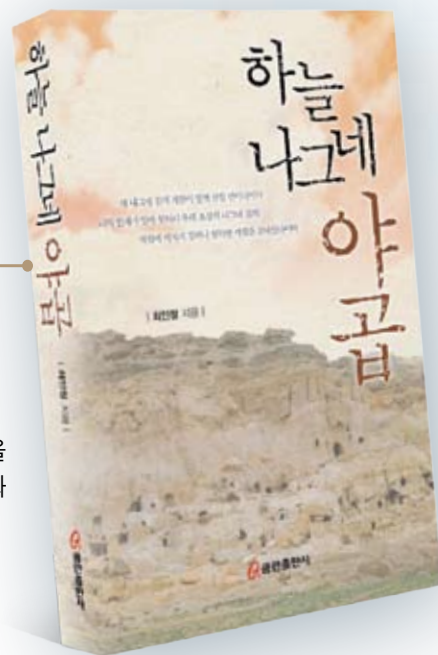
한 잔의 커피를 마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며 그 맛은 원두커피의 그것처럼 예수의 고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달콤하면서도 쓴 여운이 남는 그런 글입니다.

이순철 지음 / 368면 / 13,000원

하늘 나그네 야곱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나 147세를 살고 죽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저자는 야곱의 삶을 1인칭 야곱의 시점에서 이야기 식으로 풀어냈으며, 성경에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당시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각 장마다 뒷말 정리를 통해 성경적 해석과 역사적 배경과 상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깊은 이해를 더한다.

최인철 지음 / 496면 / 18,000원



친절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유혹이 난무하는 혼란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건전한 요한계시록 읽기를 제안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쯤 읽어봤을 질문들을 목회자가 성도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서 혼자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은일 지음 / 360면 / 13,000원



창조과학 칼럼 (201)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10) 식물 2, 종류대로

창조주간 제 3일째 창조된 식물들은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창1:29-30)이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다. 직전 칼럼에서 소개했듯이,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당(탄수화물)의 형태로 사람과 동물에게 전해진다. 사람 몸 안에서는 광합성의 반대과정인 당의 분해가 이루어지면서 당에 잡혀 있던 에너지가 생체 에너지로 전환되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결국 물과 이산화탄소를 매개체로 공해물질을 전혀 생산하지 않고 태양 에너지만 고스란히 운반되는 완전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식물을 한 가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after their kind)' 창조하셔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고 있다.

'식물은 몇 종(species)이나 창조되었을까?'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 '식물은 몇 종류나 창조되었을까?'라고 해야 한다. 하나님은 종(species)대로가 아니라 종류(kind, 히브리어 min)대로

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 한 종류(kind)는 과학 교과서의 한 과(Family)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역으로 말하면, 창조된 한 종류에서 여러 속과 종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있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종(species) 명단을 작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현재까지 보고된 식물이 100만 종이 약간 넘는다. 이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이 발견되자 성경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났다.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미생물은 언제 그리고 왜 창조되었을까?

어떤 미생물들과 바이러스들은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생물들은 인류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느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은 지금도 인류에게 유익하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다. 김치와 된장, 치즈와 요구르트, 포도주 등 모든 발효식품들은 미생물들의 작품이다. 사람의 대장에도 대장균이 가득 들어있어 비타민을 만들어내고 나쁜 균들이 증식하는 것을 막는다. 미생물은 사람과 동물뿐 아니라 식물들이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물이 창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생물들이 언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언급이 없다.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이 인류의 타락 후에 생겨났을 것이라

창조된 한 종류에서 여러 속과 종의 다양한 생물 나타나 미생물도 창조 당시에 생겨... 타락 후에는 변형만 가능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일반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종(species)'은 교배의 한계를 정하기 위함이다. 즉 한 종은 다른 종과 교배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느 한 생물이 다른 종과 교배가 된다면 그 두 생물은 같은 종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일반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의 구분은 그리 정확하지 않다. 많은 중간 잡종(hybrid)들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그 증거다.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생겨난 라이거 혹은 타이곤, 카요티와 늑대나 개 사이에 새끼들(중간 잡종)이 생겨났다. 심지어 한 창조과학자는 종(species)의 상위 범주인 속(genus)까지도 다른 두 범주를 자연 교배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일반 과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자연 교배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서로 같은 종들이다.

과학 교과서와 달리 성경은 종류(kind)라는 분류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교배의 한계를 의미한다. 창조과학자들은 호랑이, 사자, 표범, 퓨마, 오셀롯, 고양이 등 고양이과에 속한 모든 종들을 같은 종류라고 여긴다. 카요티와 늑대와 개 그리고 자칼도 같은 종류며, 앞에 소개한 두 범도 같은 종류라고 여긴다. 즉 종류의 범위가 종의 범위보다 훨씬 커서 한 종류는 많은 속(genus)과 종(species)들이 나타난 것이다.



한 종류(kind)에서 생겨 난 종(species) 들은 다 같은 종류

한 조상 즉 한 종류에서 새로운 종(species)이 나타나는 현상을 진화론자들은 종분화(speciation)라 하며 소진화(micro-evolution)의 현상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변이(variation)이다. 새로운 유전정보가 약간 더해져서 생긴 변화라면 소진화가 맞지만 유전정보를 잃어버리거나 유전정보의 재조합에 의한 변화는 변이라고 해야 맞다. 지금까지 새로운 종이 출현한 경우든, 돌연변이의 결과든, 혹은 자연선택의 결과든 그 어떤 자연 과정을 통해서든 새로운 유전정보가 생겨난 경우가 없다. 이론적으로도 유전정보가 우연히 생겨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그 한계 안에서만 다양해질 수

에 거의 절반은 중복되는 종이다. 이 사실은 식물 분류가 얼마나 어렵고 체계화 되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 예로 데이지(daisy)라는 꽃은 무려 29가지의 다른 학명을 가지고 있다.

현재 확인된 식물 종(species)은 약 30만 가지다. 그 중에 대부분인 26만-29만 종은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 것이다. 이 종들은 16,167 속(genus)에 들어가고 620과(Family)에 소속이 된다. 한 과에 거의 500가지의 종이 들어있는 셈이다. 만약 '종류'의 범위가 '과' 수준이라면 620여 종류의 식물이 창조된 셈이다. 그러나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30만 종이나 되는 식물들의 교배의 한계를 알아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이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생각은 미생물들의 부작용에 큰 영향을 받은 생각일 것이다. 타락 과정에서는 이미 창조된 것들에 크고 작은 변형이 있었겠지만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창조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간 6일 동안에 모든 창조를 마쳐셨기 때문이다(창2:1-3).

미생물들은 식물이나 동물 혹은 사람과 완전히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떤 관계(보통은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창조과학자는 이 미생물들은 다세포 생물들이 환경에 접하는 면적을 크게 해주는 번식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창조자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미생물들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각 식물, 동물 혹은 사람과 함께 각각 다른 날 완전한 생물학적 시스템(biological system)의 일부로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야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세계의 영어 표현은 복수(worlds)로 되어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게, 미생물들을 포함한 식물세계도 처음부터, '종류대로', 완전하고, 복잡한 형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갈수록 태산인 사명자의 길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와 너희를 갈라하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출5:19-21).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 달라 요구하니 오히려 무거운 고역을 증가 합니다. 이에 마음이 상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런 상황에 바로에게 출애굽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채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이들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재하시니 하나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불가능한 삶의 위기라는 상황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험입니다. 절대하게 속에서 행위구원의 불안한 정서를 떠나 믿음으로 사는 라이프스타일로 조금씩 바뀌십시오. 범사에 하나님께 고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의 무대의 훈련을 거쳐야하는지 점점 산중입니다.

200만 이상을 광야 길에 인도하는 것이 보통 일일겠는가? 정예부대가 아닌 오합지졸, 조금만 힘들어도 법석 떠는 이스라엘이 아니던가요? 이런 자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길은 참으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모세가 강력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모진 훈련이 시작됩니다. 처음 부딪치는 것이 저들의 완악함입니다. 바로도 백성들도 꿈쩍 않는 막강한 철혈성입니다. 바로는 물론 이를 갈며 저항하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진짜 막강한 적은 죽는다고 난리하는 이스라엘들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리더 패장들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모아 오히려 대적인 바로에게 호소하며 모세의 출애굽 사역에 어려움을 가중합니다.

백성의 대표급인 저들은 늘 순간의 생존에 민감한 백성들의 불평을 만나면 그야말로 눈빛이같이 부풀어진 불평을 지도자에게 던지는 것을 저들의 사명으로 압니다. 근본적인 해결위해 손을 모으기보다는 곤란한 자기 입지 굳히기에 급급합니다. 사명자로 지명된 모세의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상황은 계속 꼬여만 가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같이 보이질 않습니다. 당장의 고통이 심하니 죽기로 대드는 이스라엘,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백성의 지도자들! 신뢰를 요구하며 대언을 명하시는 하나님! 어쩌란 말인가? 여기서 못하겠다고 난리한 하나님은 모세의 고통을 아시는지? 앞으로 가라고만 하시니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하게 보였을까?

주님께 앞도립니다. 모세와 같은 사명자의 길이 너무도 멀고 피곤합니다. 사명자라 알고 있지만 막상 일이 막히고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안개 속을 헤매이 듯 캄캄하면 너무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약한 저희들입니다. 끊임없이 물려드는 어려움에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고 절망을 끌어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천국회복의 이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꼭 불뚝도록 도와주소서!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저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에 마음이 어리 저리로 밀려다니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시지 않던가? 사역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없이 흔들리는 저들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거꾸로 가는 것같이 마귀가 대승하는 것 같아도, 약속을 팔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충실하심을 굳게 잡고 요동치 않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기뻐하도록 믿음으로 강건히 일으키소서! 신묘막측한 지혜로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목회서신

거룩한 유산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우리 몸에는 부모님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가에 관심이 많 습니다. 아이를 보고선 '아빠를 닮았구나' '엄마를 닮았구나' '할아버

지를 닮았구나' '할머니를 닮았구나' 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누구의 유산이 전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얼굴이나 외모만 유산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이나 태도도 전해집니다. 유산에는 좋은 유산도 있고 나쁜 유산도 있습니다. 대대로 원수지간에 있는 두 가문이 증오심과 복수심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다면, 그것

은 결코 좋은 유산이 아닙니다. 좋은 유산은 하나님이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유산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학시절 먼저 유학 온 목사님이 자주 찾아와서 외국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적지 않은 도움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한국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미국에 와 있는 미국인 선교님이 있는데 한번 만나 뵙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한국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다가 이

제는 정년 은퇴하시고 캘리포니아에 와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찾아가 뵙자고 했습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분은 입구에서 예배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만나 뵙고 싶었다고 했더니 예배 후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예배 후 그분의 안내로 교회 인근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대에 걸쳐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나오면서 우리

가 식사비를 내려고 했더니,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느냐며 극구 만류했습니다.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선교사님께 저녁을 얻어먹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 분도 한국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는 사실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왕 유산을 남기려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위대한 신앙 위대한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교회(제자회) 신임회장 이재영 목사

제11회 한인정기총회, "공동체 통한 영성운동 지향"

크리스천교회(제자회) 미주한인교회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시카고크리스천교회(담임 노동국 목사)에서 제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영 목사(오하이오옌트크리스천교회 담임)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제11회 한인제자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신임 회장 이재영牧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변화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유기체적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목회자들의 모임인 한인총회가 섬김의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 "제자들의 리더십과 영성,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 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리더십과 영성 그리고 공동체'라는 주제로 홍종국 목사(시애틀 만남의교회 담임)와 이재영 목사가 주제 강의를 맡았다.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미주 전 지역에서 참여한 이번 총회 개최예배 설교는 유근희 목사(전 교단본부 태평양아시아 목회담당)가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딤후2: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재영 목사 △부회장: 남윤수 목사(수정크리스천교회/시애틀 워싱턴주) △총무: 김충성 목사(좋은 이웃교회/애틀랜타, 조지아주) △회계: 안요셉 목사(예수사랑크리스천교회/파사디나 캘리포니아) △서

기: 서해남 목사(새생크리스천교회 산호세, 캘리포니아). 제자회 교단은 1803년 미국의 제2차 영적 각성 운동 때 초대교회를 받받기 위해 장로교회 목사 바톤 스톤(Barton W. Stone)과 토마스 캠프(Thomas Campbell)이 주축이 돼 형성된 북미주 지역 자생 교단으로 미국 민주주의 발전과 대학교육 그리고 해외선교에 많은 기여를 했다.

(기사제공: 크리스천교회(제자회))

기독교 평화운동 추구단체 생긴다

'평화의제자들' 22일 첫 준비모임

성경적 기독교 평화운동을 추구하는 한인목회자·선교사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이 남가주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평화의제자들(가칭)'이 이번 주말 LA 코리아타운에서 제1회 창립 준비모임을 22일(금) 오후12시 만리장성에서 열고 앞으로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발기(창립)선언문 및 정강 등에 대해 논하게 된다.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모든 인간과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자연과 사회 속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와 의무

가 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며 자연과의 평화, 사회적 평화, 내적 평화 등 모든 평화가 깨어지게 됐다. 교회조차도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 대신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머리가 되고자 분쟁하며, 선교지는 평화는커녕 억압과 핍박 아래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더불어 이단, 사이버불의 침투로 교회와 선교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평화를 잃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

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또한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가져오기 위함이란 인식 하에 미주의 한인 목회자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화를 이루는 자로 일어나 평화의 외침을 외쳐보고자 모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평화를 위한 기도회, 평화 관련 세미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한 연구, 평화 주제 설교 및 글 기고·취합·공유·발표 등. "평화에 관심 있는 많은 목회자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문의: (213)605-1978 박사무엘 목사 (기사제공: 평화의제자들(가칭))

문화사역단체 One Heart Ministry 첫 모임

'오픈하트미니스트리' 이름으로 후원회 발족



원하트 미니스트리 후원회 첫모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원하트미니스트리(One Heart Ministry, 대표 피터박 목사 이하 OHM) 후원회 첫 모임이 18일 오후 7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원하트미니스트리의 사역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피터박 목사는 "원 하트라는 이름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 안에

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에서 나왔으며 이 말씀은 사역을 준비할 때 기도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OHM은 문화사역을 하는 사역단체다. 이 문화사역을 통해 다음세대까지 연결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다"라며, "OHM을 후원하는 모임의 이름을 오픈하트 미니스트리(Open Heart Ministry)로 정했다. 오픈하트는 의미 그대로 원하트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원하트미니스트리의 사역은 △음반기획 및 제작, 콘서트, 북음성가대회, 한국 찬양사역자 미주초청투어 등 공연기획 △음향, 영상기기 설계, 시공, 판매, 음향장비 렌탈 △교회 인쇄물, 앨범표지, 잡지 등 다양한 기록물과 디자인 및 인쇄 등이다. 저희 사역이 잘 이뤄지도록 많은 후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후원회 모임은 원하트미니스트리의 시드멤버이자 고문인 최종현 장로, 제임스나 치노힐스 교육위원, 데이빗곽 인랜드한인회장, 데니얼윤 한미부동산협회 사무국장, 한의사 강상혁 집사, 케티강 올레코리아이웃 대표, 교사 조연박 씨가 참석했다.

▲문의: (213)703-7663 (박준호 기자)



APU한인총동문회 주최 구약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APU 한인총동문회 주최 구약세미나

강사에 노세영 서울신대교수, 하경택 장신대교수

아주사피사피대학교(APU 총장 존 웰레스 박사) 한인총동문회(회장 광경동 목사)가 주최한 구약세미나가 지난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교 웨스트캠퍼스에 위치한 펠릭스이벤트센터 내 VIP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로는 APU에 교환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장신대학교 교수인 하경택 박사와 APU 교환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클레이몬트신학교에 교환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인 노세영 박사가 강

의했다. 레위기를 강의한 노세영 박사는 "레위기는 유대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노 박사는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하다.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부정 한곳에 하나님이 계시 수 없기 때문"이라 언급하며, "살면서 부정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부정해진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부정 한 것이 쌓이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 수 없으시고 떠나시게 된

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파멸뿐"이라 설명했다.

노세영 교수에 이어 하경택 교수는 욕기에 대해 강의했다. 하 교수는 "욕기는 모든 것을 녹여 새롭게 하는 용광로와 같다. 제대로 된 전통 성서적 시각,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내용은 욕기 용광로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처럼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욕기의 중심주제로는 첫째, 욕이 보여준 반응은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귀감이 된다. 둘째, 욕의 친구들이 보여준 반응은 정통신학의 숙고와 성숙한 적용을 요청하게 된다. 셋째, 욕과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신앙인의 탄식을 긍정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도 우리는 욕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을 맞은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며, "욕기는 이러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위로와 지혜의 책이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살롯지역 광복절 제69회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맨오른쪽 나성균 목사, 가운데가 한인회장 전승현 집사.

살롯지역 광복절 제69회 기념식

한인회장 이취임식도 함께 가져

살롯지역 광복절 제 69회 기념식이 15일 오전 11시 아시안도서관(Asian Library)에서 거행됐다. 개최기도를 맡은 나성균 목사는

살롯지역 교협회장으로서 지난 24회기 때 돌로 나눠져 어려움을 겪던 한인회를 하나로 합하도록 돕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69년 전 불

꽃의 투지와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한 선조들의 자랑스런 영성과 애국을 또한 감사했다. 또 이 신앙과 애국정신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시대적인 사명을 다함으로 조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국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

한편 이날 제 25대 한인회장으로 전승현 집사(살롯장로교회)가 취임했다. 취임식에는 살롯장로교회 교우들이 참석해 전 회장을 후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승현 회장은 "한인회를 최선을 다해 단합시켜 교포들을 섬기고 늘 즐거운 한인회를 만들뿐 아니라 한인들을 바람직하고 당당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전진케 함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과 소외된 계층을 적극 포용하고 후원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살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 살롯한인회)

푸/ 른/ 초/ 장

(4면에서 계속)

임으로만 주어 주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심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치 못하고, 거짓말 하고, 불법을 집단적으로 행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모습들에 실망하여 뻔한 인간과 영혼에 한 편에 미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안 지키니, 세상 법도 안 지키는 위선자들 때문에 기독교에 실망을 하고 천주교의 각본에 짜여진 시나리오에 환호하며 영화 한편에 국민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고, 관념적으로만이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운 만큼, 그 말씀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듯, 세상에서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잘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는 행동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장애우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세월호 유족

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더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은 물론 교회 다니던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로 얼마나 몰려갈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개종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바탕으로 말씀 중심이고,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황(교황령)이 있는 종교입니다. 즉 성경을 인간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더하고, 빼는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시대나 알곡과 쟁쟁이를 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며 사는 진짜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며, 온갖 거짓과 사기와 불법을 행하며 사는 가짜 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곡 성도는 어떤 시험과 환경과 사람에게도 안 넘어섭니다. 그러나 가짜 쟁쟁이는 교황의 바람에, 영화 한편의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즉 쟁쟁이는 사람과 환경과 분위기와 시험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사랑이시요, 또 하나는 공의이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요, 공의는 심판이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성경이고 심판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심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판의 두 갈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심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WCC와 천주교가 주도하는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지옥 갈 소리를 듣지도 믿지도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탄의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별 때일수록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 모집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소속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목사)가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주, 야간 모집학과는 △대학부/신학과, 선교학과 △대학원/목회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여교역학과이며 분교 소정양식 입학원서, 당회장/목사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신앙고백서, 병환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를 준비해야 한다. 원서접수 마감은 9월 5일(금) 오후 6시이며 6일(토) 오전 11시 입학시험이 있다.

▲문의: (718)463-7163, (516)782-4564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생 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특별 장학금 혜택이 있다. 본교는 온 캠퍼스(I-20발행)와 온라인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로, 학위과정은 ESL 프로그램과 대학부(B.R.T, B.R.M, B.R.B.A), 대학원(M.C.C, M.C.E, M.C.M, M.M.L, M.Div) 박사학위(D.Min, D.C.M, D.C.L)가 있다. 미주리주 웹즈빌 본교와 워싱턴DC 분교가 있다. 미주리주와 버지니아주 인가를 받고 ATSS와 ABHE 회원가입이 되었다. 웹사이트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퀸즈장로교회 무료 열린유아원 개강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진행하는 무료 열린유아원이 9월 11일(목)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참가대상은 만2세-4세(8월 31일)로, 등록은 9월 9일(화) 오전 10시 동 교회 유아부실에서 한다. 선착순. 수업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12시.

▲문의: (646)328-6438 이명옥 전도사

뉴욕교협 AYC 후원 골프대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 산하 뉴욕청소년센터(AYC, 대표 최창섭 목사)의 밴 구입을 위한 골프대회가 8월 27일(수) 정오(티오프: 오후 1시 30분) Clearview Park 골프장에서 열린다. 회비는 일인당 100달러.

▲문의: (188)83-0678(진행위원장), 757-2379(준비위원)

뉴욕목회자성경연구원 제 3차 세미나

뉴욕목회자성경연구원 제 3차 세미나가 9월 8일(월)과 9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열린다. 강의내용은 여호수아 강해로 강사는 박승호 목사(서울, 생명생교회 담임), 대상은 뉴욕지역 목회자(사모)에 한한다. 회비는 없으며 교재비는 20달러다.

▲문의: (718)899-8309

미주예심전도훈련원 5기생 모집

미주예심전도훈련원(원장 이종선 목사)이 6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9월에 개강하는 5기생을 모집한다. 전도의 체질화와 습관화를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는 동 훈련원은 5기생 장소를 제공할 교회도 찾고 있다. 지난 3기는 A와 B 반으로 나눠 뉴욕주교회(김연수 목사)와 뉴욕주남의사택교회(이종선 목사)에서 각각 전도 교육을 실시했다. 3기는 한국 예심전도훈련원 원장 김기남 목사의 동영상강의와 강의를 받고 훈련은 이종선 목사가 진행했다.

이종선 목사는 "2년 전에 했던 1기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 주로 훈련에 임하셨다. 2기는 5명 정도의 훈련생들이 전도훈련에 임했으며, 3기는 자연스럽게 홍보와 전도훈련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개강일은 9월 9일(화) A반 오전 10시, B반 오후 7시이며 수강료는 250달러(본납 가능, 교재비 80달러 포함)다. 자세한 문의는 (347)559-3030, (718)539-1010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침례교회 지방회 목회자 가족수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한인침례교회지방회 목회자 가족수양회

뉴욕한인침례교회지방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목회자 가족수양회를 포코노에서 가졌다. 뉴욕 지방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양회를 열어 회원 가족들 간의 친목도모와 목회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영적 수양을 위해 강사를 초청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자체 강사들로 진행했다. (기사제공: 뉴욕한인침례교회지방회)

살롱교회 연합부흥회 앞서 준비기도회 1차 살롱장로교회, 2차 온나라교회, 3차 남부교회에서

살롱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나성균 목사)가 연합부흥회를 앞두고 지난 5일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1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예배는 나성균 목사의 사화로 성경봉독 류인우 목사, 설교 조성민 목사, 합심기도인도 서형일 목사, 축도 강준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성민 목사는 삼상 7:5절을 본문으로 "에베에셀을 원하기 전에

미스리의 회개가 있어야하며 제물이 죽어지는 희생이 반드시 앞서야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본이 될 때 살롱의 부흥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친교는 살롱장로교회에서 병면준을 준비해 참석자들이 교제를 나누며 부흥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다. 한편 2차 준비기도회는 11일 온나라교회에서 열렸으며, 3차는 19일 남부교회에서 각각 열렸다. (기사제공: 살롱교회)

살롱장로교회 설립37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전재현 장로장립 등 총 13명 임직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설립 37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나성균 목사 인도로 현 PCA 한인동남부교회장 이재룡 목사가 맡았고 기도예 김성훈 목사, 권번 황성철 목사 임영민 목사, 축사 정치오 목사, 축시 김길홍 목사, 축도 강준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장로장립: 전재현 △장로취임 조동식 △안수집사장립: 성기태, 임성기, 전승현, 전오현 △안수집사취임: 진태형 △권사취임: 이수경, 신찬화, 유계자, 김해숙 △성명예안수집사: 허정남 △명예권사: 이병란.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뉴욕예심전도학교 2기 졸업생들과 이종선 목사(오른쪽)



RCA 뉴욕한인교회 여름 수양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RCA 뉴욕한인교회 여름 수양회

RCA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봉 목사)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뉴저지 아널스헤븐 리조트에서 여름수양회를 가졌다. '주 안에서 담대하라'(엡6:10)는 주제로 뉴욕 뉴저지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수양회는 아침과 저녁으로는 말씀을 나누고 낮 시간에는 골프, 스카, 테니스, 수영, 조깅 등 스포츠와 친교시간을 가지면서 영육간에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저녁 집회에서 이봉삼 목사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

번 씻어라"(왕하5:8-14)는 제목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묵화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한다"며, "문동병자와 같은 자신의 생각은 버리고 피 값으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도록 애드레 강구하자"고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둘째 날 아침 기도회는 조대형 목사가 인도했으며 저녁집회는 한재홍 목사, 마지막 날 아침집회는 김용복 목사가 각각 말씀을 전했다. (기사제공: RCA 뉴욕한인교회)

건국절 제정 1천만명 서명운동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뉴욕지회, 광복절 기념행사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김남수 목사)가 대한민국 건국절 제정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뉴욕지회는 지난 15일 저녁 프라미스코(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광복절 및 건국일 기념행사를 갖고 서명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방지각 목사는 에스더 9:20-22를 본문으로 "역사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던 하만과 히스기야왕 때 예루살렘을 침공한 앗수르 군대 같은 일본제국의 손을 들게 하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방지각 목사는 1945년 해방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해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했다. 이어 반전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은 교만함을 반드시 응징하시며,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지각 목사는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됐지만, 주권이 회복되고 유엔의 승인을 얻어 건국이 된 것은 1948년 8월15일이라며, 광복절은 있으나 건국절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건국절 제정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예배가 열린 본당 앞에서는 건국절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광복회측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있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1948년 건국절이 제정된다면 독립유공자들의 모임인 광복회 입장도 반하게 된다. 기념예배는 애국가와 미국가를 부른 후 김영복 목사가 개회사를, 한재홍 목사가 기념사를 했다. 또 광복절 노래(테너 김영환), 축시낭송 조의호 목사, 만세삼창(인도 김명신 장로)에 이어 박우신 목사(프라미스코) 인도로 조국과 미국, 교회들을 위해 뜨거운 통성기도 후 안양의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h3>뉴욕갯세마니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성경강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h3>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h3>뉴욕새벽별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예배: 오전 10:45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성경강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h3>뉴욕새생명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6:00</p>	<h3>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3>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뉴욕중부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p>	<h3>뉴욕초대교회</h3> <p>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V에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강좌: 오전 10: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h3>리빙스톤교회</h3>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강좌: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 성령강좌: 오후 8:30</p>	<h3>통일대성결교회</h3> <p>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9:45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선한목사교회</h3> <p>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p>	<h3>에베에셀선교교회</h3> <p>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h3>에사랴교회</h3> <p>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주비전교회</h3>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금요성경강좌: 오후 5:00 영예배: 오후 1:00</p>	<h3>킨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h3>킨즈한인교회</h3> <p>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p>	<h3>한마음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브라질 새사도교회</h3>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h3>칠레 한인연합교회</h3> <p>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개혁 기념: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정관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후 7:30</p>	<h3>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3> <p>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1, 2, 3, 부스페니니 설교)</p>	<h3>하와이 행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47</p>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은혜한교회에서 열린 부부처음사랑 되찾기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청된 노먼 라이트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믿음으로 사는 남성들 특별집회'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 교회이전 행사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일권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남성들 특별집회'를 연다. 브레아로 교회를 이전한지 2주년을 맞아 교회의 목적을 회복하고, 이 시대 남성들을 격려하며 축복하고자 "블레시 브레아 시타"라는 주제를 정했다.



일시는 8월 27일(수)과 28일(목) 오후 7시30분에 열리며 7시부터는 간단한 식사도 제공된다.

첫째 날은 "쉽"이라는 주제로 CCM가수이자 "나는 내 아들이라"의 작곡자인 이은수 목사의 찬양과 간증에 이어 고현종 목사(열반인 디사이플 교회 담임)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의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 김일권 목사(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는 "이번 집회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1:38)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하게 됐다"며, "집회를 통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의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방향"이라는 주제로 '야곱의 축복'으로 널리 알려진 소리의 복음가수 지명현 목사가 찬양과 간증에 이어 서울 온누리교회 남성사역을 섬겼던 이은호 목사(현 사이닝펠로교회 담임)가 남성들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 주소는 451 W Lambert Rd(#204 & 205) Brea이며 집회 관련 문의는 (714)988-3321, (909)279-1919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

'한국 역사 속에서의 세월호 참사'

고 장준하선생 39주기 추모강연회, 강사 장호준 목사



은혜한교회에서 열린 서울영락교회 호산나성가대 순회연주에서 호산나성가대와 호산나성가대 출신 사역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고 장준하 선생 39주기 추모 강연회가 16일 오후4시 JJ그랜드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고인의 삼남 장호준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며 주제는 '한국 역사 속에서의 세월호 참사'.

이런 사고에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호준 목사는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구입과 무리한 중축, 과적 등이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침몰참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70년 와우아파트 붕괴부터 71년 대원각과 73년 대왕코너 화재 사건, 93년 아시아나항공기 폭포공항 추락사고,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 붕괴, 99년 씨랜드 화재사건 등 수많은 대형 사고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대원아파트 붕괴부터 71년 대원각과 73년 대왕코너 화재 사건, 93년 아시아나항공기 폭포공항 추락사고,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 붕괴, 99년 씨랜드 화재사건 등 수많은 대형 사고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장 목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사고를 잊지 말자. 희망을 갖고 끝까지 가자. 그것이 어찌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서울영락교회 호산나성가대 순회연주

"Peace of Speaker" 주제로 5개 교회서

서울영락교회(담임 이철신 목사) 호산나 성가대(지휘 전은배) 미서부 지역 순회연주가 9일부터 17일까지 'Peace of Speaker'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1978년부터 시작된 이 순회연주는 찬양을 통한 은혜의 시간을 나눔으로 각 지역 간 문화적 격차로 인한 교회음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자극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시작됐다. 본 성가대는 젊은 찬양대로 19세부터 28세까지의 대학생과 청년으로 구성됐다. (박준호 기자)

광복절인 15일 저녁 8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 순회연주에는 "The Anthem on the Peace(G.F. Handel)", '평화의 노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리랑', 'Canon in D', 'Dona Nobis Pacem' 등을 불렀으며 성가대원 중 남성중창과 여성중창의 순서를 갖기도 했다. 또한 본 교회 호산나성가대 출신 음악인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연합합창으로 '평화의 기도'와 '헨델의 할렐루야'를 불렀다.



고 장준하 선생 39주년 추모 강연회에서 장호준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서부교회게 게시판

교회음향세미나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가 주최하는 교회음향세미나가 9월 1일(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KCCC소극장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자는 부교역자, 전도사, 찬양인도자, 찬양팀, 음향담당자 등이며 참가비는 20달러(저녁/교재 제공) ▲문의: (951)973-9573/강석변 전도사 (714)586-6202/이상우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율학원 코랄' 초청 공연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율학원 코랄' 초청 공연을 오는 24일(주) 오후 2시30분에 갖는다. ▲문의: (626)986-3443

LA기운실 건강교회 교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허성규, 홍진관)은 건강교회교실을 3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3020 Wilshire Blvd, #100)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박문규 학장(캘리포니아인태사넬대학), 김동일 목사(생명찬교회), 허성규 교수(칼스테이트 샌버나디노), 허현 목사(Reconcili Asian)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213)387-1207

유학생 위로의 밤

엘피스코교회(담임 박종기 목사 2400 N. Canal St. Orange)는 유학생 위로의 밤 행사를 9월 5일(금) 오후 5시에 개최한다. 대상은 남가주 거주 한인 유학생(Elementary-Ph.D). ▲문의: (949)769-4337, (714)287-2854



광복절 태극기

광복 69주년을 맞아 한인커뮤니티 단체들이 광복절 행사를 개최했으나 정작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되찾은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후대에도 건국의 정신이 계승되기를 바라지만 태극기를 볼 수 있는 곳은 한정됐으며 더구나 광복절에 태극기를 게양한 곳을 찾기 힘든 것은 모순이라 여겨진다. 사진은 한인타운내 한인교회 유일의 태극기를 게양한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담임 신병욱 목사). (박준호 기자)

KCCD 주최 제13회 주택구입박람회

한국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이 주최한 제13회 주택구입 박람회가 1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석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KCCD 주택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신용상기의 중요성', '부채관리 프로그램', '부동산 에이전트 찾기', '주택안전정보', '공정 주택거래법과 책임',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파산 및 처분이후의 기회', 'LA시 및 LA카운티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 'HomeRun 프로그램/FHA-Sapphire', 'My Community Mortgage/Equity프로그램' 등에 대해 패널리스트들이 나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운페이 보조 프로그램과 관련 상품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www.thanksgiving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fgusa@yahoo.com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Tel. (323)388-7101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Tel. (562)691-0691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원인 Tel. (213)481-2779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www.scrdm.org	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Tel. (714)772-7777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Tel. (310)719-2244	등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Tel. (213)483-8625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Tel. (323)486-1234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Tel. (626)793-0880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Tel. (213)380-9377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Tel. (213)381-2202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Tel. (310)749-0577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Tel. (818)249-2871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Tel. (562)694-621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www.samsungchurch.org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www.newpraisechurch.org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Tel. (818)952-2449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Tel. (213)745-9191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Tel. (818)249-2871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www.ircvchurch.com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성호 Tel. (213)245-409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Tel. (213)384-7274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Tel. (213)749-4500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www.cornestony.com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www.torancececc.org

시복식 열리던 때, 청계천서 '8·16기도대성회'

로마가톨릭&교황정체...운동연대-교황방한대책협 공동주최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시복식이 열린 가운데, 로마가톨릭&교황정체알리기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와 교황방한대책협의회(회장 변병탁 목사)가 같은 시각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8·16기도대성회'를 열었다. 특히 로마가톨릭&교황정체알리기운동연대는 그간 '흑과 백보다 더 다른 기독교와 가톨릭',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등을 펴내고 도합 116만 부를 배포했으며, 7월 22일 광주 거자씨교회에서 '기독교와 가톨릭 일치 반대 전국목사집회'와 8월 12일 일산 킨텍스에서 '기독교와 가톨릭의 일치 반대를 위한 대성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날 대성회를 끝으로 활동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마태복음 23장 25-28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송준길 목사는 "역사 가운데 의하면, 가톨릭이 기독교를

표방하고 적게는 5500만에서 많게는 8000만 명까지 죽인 것은 엄청난 사실"이라며 "그런 그들은 몇십년 전에 겨우 몇 마디 사과를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보상도 하지 않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복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송 목사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찰을 통해 자국민들을 통제하면서까지 광화문 일대를 내어줄 수 있느냐"며 "이는 우리의 앞날에 머지않아 진노와 재앙을 불러들이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너무나 두렵다고 했다.

송 목사는 "로마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이러한 이들을 무익한 것으로 굴복시켜 버리는 것이 가톨릭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가톨릭은 마리아 상을 만

들어 놓고 마리아를 향해 간구하며, 교황은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고통을 마리아에게 의탁한다고 했다"며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사람이요 죄인이요 나약한 존재인데, 죽은 인간에게 대한민국의 장래를 맡기면서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송 목사는 "시복식에서 죽은 자를 위한 제단과 마리아 상과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혼합종교의 극치이며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그런 가톨릭에 온 인류가 미혹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일각에서는 '신앙과 직제협'을 만들어서 가톨릭과 기독교를 일치시키려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도 여기에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송 목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이 같은 재앙을 막아보고자 오늘 기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어두움을

몰리지는 빛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자"고 역설했다.

사회를 맡은 변병탁 목사는 "오늘 이 자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라며 "교황과 그 배후의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자. 가톨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집단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길 믿는다"고 했다.

변 목사는 "오늘날 서구 교회는 대부분 사망임이다. 동성애와 낙태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며 "오늘 기도가 열리고 있는 청계천도 원래는 썩은 물이 흐르던 곳이었는데 맑은 물로 바뀌었다. 사람도 이러한 일을 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겠는가. 바람난 한국교회가 진리로 돌아오도록,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예상함동 총회서기인 김영남 목사도 참석해 대표기도하기도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변병탁 목사의 인도로 통성기도하고,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기도하고 주변 정소를 한 뒤 해산했다

이영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단독입후보

9월 2일 임시총회...당선 시 한교연과 관계에 진전 기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 20대 대표회장으로 당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훈 목사는 지난 13일 흥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이 "새 대표회장이 당선되고 취임하는 날에 대표회장직에서 떠나겠다"며 사퇴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후보로 등록했으며 흥 대표회장의 퇴진 선언으로 치르게 될 보궐선거에,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8월 16일 정오까지 이영훈 목사 외의 다른 입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이목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당선돼 흥 목사의 잔여임기인 약 1년 5개월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한기총에 이영훈 대표회장 체제 출범이 확정될 경우, 한기총 및 교계 연합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기총은 이목사가 기하성 총회대리인을 통해 관련서류를 접수하고 후보 등록을 위한 발전기금 1억원 입금도 완료했다고 14일 밝힌바 있다.

기하성 총회 측은 이날 "갈라진 교회연합기반의 통합과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 회복을 위한 결단"이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나선 것"이라고 이목사의 출마 취지를 설명했다.

대표회장 선거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임시총회에서 치러진다. 신임 대표회장은 흥 대표회장의 잔여임기인 2016년 1월까지 대표회장직을 수행한다.

대신·고신·합신 교단 하나되기 나섰다

총회장단 '3개교단 하나됨을 위한 교류추진위원회' 구성 합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최순영 목사)과 고신(총회장 주준태 목사), 합신(총회장 이주형 목사) 등 3개 교단 총회가 하나의 교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초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들 3개 교단 총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노보텔엠베서드 호텔에서 총회장단 모임을 갖고 '3개 교단 하나 됨을 위한 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은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발전을 꾀한다' '이를 위해 3개 교단의 교류를 촉진한다' '한국교회의 연합에 기여한다' 등 3개 항이다. 교단 간 교류를 위해서는 목회자 강단 교류를 실시하고 목회자·장로 수련회, 체육대회, 연합집회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3개 교단 임원들은 다음 달 열리는 각 교단 총회에서 교류추진위 구성을 허락받기로 하는 등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3개 교단 통합이 성사되면 5000여 교회를 보유한 대형 교단이 된다. 이들 교단은 신학과 신앙이 같은 데다

여성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등 공통점이 많아 실제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교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고신과 합신 교단은 3년째 통합을 위한 교류 및 의견조율을 진행해왔다.

최순영 예상대신 총회장은 "3개 교단이 북을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문호를 개방해 신학과 신앙이 같은 개혁교단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통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아름답고 건강한 연합모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준태 예상고신 총회장은 "3신(고신·대신·합신)이 힘을 하나로 모으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마치 또 다른 형제를 얻는 기분이다. 앞으로의 일이 더욱 기대된다"고 통합의지를 표명했다.

이주형 예상합신 총회장은 "불량주의적인 연합과 통합은 타락과 부패를 초래한다"며 "급진적 연합과 일치 아닌 천천히 시간을 두고 교류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권 지상주의·성유물 숭배...기독교 신앙 옳

교경협 수련회, 심상섭 전 총신대부총장 가톨릭 위험성 경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앙은 정통 기독교와 다른 이질적 신앙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상섭 전 총신대 부총장은 18일 사랑의교회(교경협·대표회장 이진영 목사) 제19차 영성수련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적 인물로 부각되고 존경받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가톨릭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교황의 한국방문의 의미와 개혁신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심 전 부총장은 "교황 방한 결과 가톨릭의 교세가 확장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신기한 것은 16세기 기독교를 통해 중세 교황 정치의 부패성이 폭로되고 가톨릭의 실상이 드러

났지만 가톨릭의 교세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전 부총장은 가톨릭이 결코 속이 다른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톨릭 사제들은 마르틴 루터의 정의의 교리를 강의하되 한다"면서 "사제들은 '가담남' '구원 경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와와의 만남' '성령 세례' '그리스도를 영접함' '은사 체현' '케리 고마' 등 개신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를 말한다"고 소개했다. 또 "사제와 수녀들은 복음적 집회에 참석하고 기독교 찬송가도 배우며 지역교회 모임에도 얼굴을 내민다. YMCA 모임에도 참석하고 개신교의 메시지와 신학용어도 자유자재로 인용한다"면서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 내의 가르침의 실상은 이

와는 정 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도 제1, 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많이 변화했다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고 도리어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개신교와 타 종교를 포섭하기 위해 위장된 모습으로 대화의 창을 열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성경적인 교황권 지상주의의 유산 아래 펼쳐지는 성유물 숭배와 마리아 숭배는 기독교 신앙을 오도한 대표적 사례"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형성된 성모 마리아와 사제들의 중보자적 사역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보편적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례와 성찬예식이 구원의 은혜가 주입되는 통로라는 기계론적 이해는 성경에 근거한 이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제들이 기적을 통해 포도주와 빵을 실질적으로 예수의 피와 살로 축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공할 만한 억지 주장"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하지만 가톨릭은 성경 외에 '은갖 철거물'들을 잔리로 수용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부응해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1000여명의 목회자와 사모에게 "개혁교회 성도들은 로마 가톨릭의 화려한 허상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목회자들은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개혁신학의 교리를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진리를 외치는 개혁교회가 되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경협 수련회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골 1:21)라는 주제로 20일 낮 1시30분까지 이어진다.

김승동·박무용 목사 양자대결로

예장합동 제9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

예장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제9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선거가 김승동(구미노회, 구미상모교회)·박무용(대구수성노회, 황금교회) 목사 양자대결로 진행된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국 목사, 이하 선거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후보였

던 정영철 목사(남울산노회, 삼양교회)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비뽑기 없이 현장에서 바로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목사를 탈락시키 데 대해 선거위는 당대의 추천이 명확하지

않고 △남울산노회에서의 정 목사 추천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위는 또 부회계 후보였던 강신홍 장로 역시 후보 추대 절차상의 하자로 자격을 취소했다.

한편 합동 임원회는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제99회 정기총회를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광주겨자씨교회(담임 나학수 목사)에서 소집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고하기로 했다.

"웨슬리 정신으로 한국교회 재부흥"

원팔원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취임식

제5대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원팔원(전주 바울교회) 목사는 "웨슬리의 사상과 신앙을 이어 받아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목사는 17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린 취임예배에서 "웨슬리언은 아니지만 웨슬리의 성령운동 영향을

받은 순복음교회와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목사는 최근 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 임원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는 "대표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5개월간 '자격이 없다'고 고사하다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협의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교단뿐만 아니라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교계 리더로 꼽힌다. 기성 총회장과 서울신대 이사장, 우간다 쿠미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1982년 지하층에서 개척한 바울교회를 현재 재적 1만3000여명 규모의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웨슬리의 사상과 신앙을 강조했다. 웨슬리의 명언 '세계는 나의 교구다'에서 따온 교회의 표제 '세계는 바울교회의 교구입니다'에서 잘 드러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벨뷰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00 청소년예배: 오전 10:00(월-토)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고,중,고부예배: 오전 11: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영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엘파소영림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기도: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EM) 수요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역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새벽 6:00(토)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월-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5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의 창 (14)

효과적인 미션 트립(Mission Trip)-1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한국교회는 선교적 열심이 있다. 그 일환으로 여러 교회들이 봉사팀을 만들어 선교지를 방문하고 있다. 현대 많은 비용과 시간에 비해 결과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크다. 예를 들어 12명이 비행기를 타고 한 선교지를 방문했다면 어렵잡아 \$3만불 정도는 든다. 피선교지에서 \$3만 달러는 뭔가 프로젝트 하나를 해 볼 수 있는 큰 금액이다. 혹자는 차라리 가지 말고 “그 비용을 통해 후원금을 보낸다면 더 낫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간 단기선교단 이름하에 진행되어 왔던 미션트립은 투자에 비해 기대치가 떨어졌다는 반론이다. 그렇다면 미션트립을 멈출 것인가? 문제가 있다고 멈추는 것은 더

시작된 것이다. 이는 장차 태어날 아기는 여인의 배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생명체가 시작된 것과 같은 이치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공중누각과 같으며 결과가 없는 과정은 허망하다. 미션트립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우선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 이 과정은 방향성의 문제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어디는 방문 선교지를 정하는 것이며 누구와 함께는 파트너인 선교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금번 행사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1) 선교지역: 먼저 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다면 그 곳으로 방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는 교회와의 연관성 차원에서

가져들의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목적은 추상적이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참가하는 헌신자들과 영적 공동체 그리고 선교사와 현지에 선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은 미션트립의 목표를 세우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지 선교사와의 긴밀한 협력이다. 시작부터 이런 소통이 없으면 선교지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으며 서로 같이 팀워크를 이룰 수도 없다.

2. 준비 단계
미션트립에 대한 기획이 확정되었다면 이제는 출국 전까지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는 매년 같은 선교지를 간다고 하더라도 내용이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온상 안에 있는 식물은 편안하기는 하지만 야생성이 없다. 야생성이 없는 식물은 생명력이 떨어진다. 자기 출석교회와 습관적인 생활 틀에 고착되어 있는 성도들을 과감히 제3세계로 내보내야 한다.

큰 문제이다. 본질과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속해야 한다. 단지 진행상의 시행착오는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일깨우며 넓은 세상을 향한 역군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온상 안에 있는 식물은 편안하기는 하지만 야생성이 없다. 야생성이 없는 식물은 생명력이 떨어진다. 자기 출석교회와 익숙한 삶의 틀에 고정되어 있는 성도들을 과감히 제 3세계로 내보내야 한다. 그래서 현장을 목격하며 도전받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션트립은 그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는 선교지와 후원교회의 가교이며 장기 선교를 향한 시발점이다. 설사 방문자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뒤에서 후원자로서 독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서로 이해도가 있어서 좋다. 그러기에 서로 낯설지 않고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역을 보고 돕는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또한 선교사의 경우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되며 팀원들을 가족 같은 친밀함으로 뭉치게 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연계할 선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첫째, 방문 목적에 부합한 곳 둘째, 경제적이거나 언어 및 사역적으로 부담이 없는 곳 셋째, 전염이나 질병 또는 종교적 박해 등에서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는 곳 등을 택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 선교단체나 교단의 선교국의 추천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형편상 소수의 인원으로 자체 팀을 구성하기 어려우면 전문 선교단체의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타 교회와 연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에 없다. 왜냐하면 선교팀원들이 다르고 선교지의 상황도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1) 준비 기간: 미션트립을 진행할 때 대략 12주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되 매주 3시간 정도 활용하면 된다. 너무 많은 준비기간은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로 너무 짧은 기간은 부실한 준비 속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적어도 6개월 전부터 홍보를 하고 대원을 모집해야 한다. 참가자의 규모는 인도자를 포함해서 10-15명 정도가 좋다. 너무 적은 인원은 결속력이 쉽게 다져지지만 사적으로 분위가 흐르기 쉽다. 또한 반대로 너무 많은 인원은 기동성이 떨어지며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관계 훈련에 있어서 소위 “끼리끼리”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2) 항공권: 미션트립 팀이 결성되면 지도자는 가장 먼저 항공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여야 한다. 항공권 매입이 늦을수록 원하는 날짜를 택할 수 없으며 값도 비싸진다. 어디나 해외로 나갈 경우 재정 중에서 항공권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3) 재정: 이는 자비량 원칙으로 하되 단체로서 모금활동이나 바자회 등을 기획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이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미션트립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보통 미션트립은 시간적 흐름을 따라서 “기획, 준비, 훈련, 실행, 정리”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기획단계
미션트립은 선교현장에 도착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획하며 준비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방지일 칼럼 (53)

“본대로 들은 대로”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보낸 후에 그를 후원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군인 하나 전지에 보낸다면 그 뒤에 200명의 역군이 일해야 전쟁의 필요한 보급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선교열은 대단한데 선교사 한분을 보내고 그 후원은 아직 멀었다 하겠다. 그가 가서 생활하는 생활비로 선교사 보내는 일의 전부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선교정책이 확립되고 그 예산에 선교사 생활비는 그 선교비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교회 현실에선 개개 교회들이 선교사 단독 보내기 내기를 하는 듯 하다. 주보에 선교사의 이름이 꼭 나열된 것이 장관이기도 하다.

선교사는 적어도 총회차원의 그 정밀한 선교정책 하에서 선교지를 택하고 그 인선도 맡아 그 훈련기간을 거쳐 파송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계획 설계 속에서 그 선교비의 일익 혹은 선교사의 활동비 등 그 지역에 따라 예산할 때에 작성한 대로 교회가 자기 역량대로 담당할 것이다. 기도의 후원이 제일 큰 몫으로 차지하거나 그 지원의 액수의 과다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라고 주보에 수록한 이가 여럿이 된다. 한 분에게 일하리만큼 지원하여 몰박아 우리 선교사로 기도하고 지원함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 명 한다하지만 몇 백불의 선교비로 선교교회의 긍지를 가질 수도 좋기는 하다 하겠으나 너무 선전위주가 한국 선교의 현장인 듯한 느낌이다.

내가 선교할 때는 모든 선교비는 총회로 가고 총회가 예산 책정하여 그 계획 설계대로 정책이 잘 되어 있어 전국 총회의 선교사로 전국 교회에 속해 있었다. 이제 다원화 되어진 바대로 선교사 수가 엄청난 고로 교회가 서로 나누어 맡았다 하면 좋은 말이나 개별적으로 선교사를 자기가 택하고 혹은 선교사 자신이 선교지도 택해 가지고 개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마지막 파송한 총회 이름으로 한다는 식이 되었다. 장점이 있기도 하나 문제점이 많다 하겠다. 개교회적으로 선교사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단독 파송음함도 심은 아니다. 선교사 생활비만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그 몇 배가 있어야 선교활동을 하게 된다. 그 지역사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겠다. 선교사 개인으로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가르친다. 현지 교회의 협동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기도 하겠다. 선교하면 가서 구원받은 교인을 얻어 교회를 세우고 그 부대로 복음전도에 유익한 역사를 전개하는데 적절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후원이 선교사에게는 뒤따라야 한다.

일선장병이 전선에서 전투행동을 하는데 그 보급품이 계속 후송되어야 전투다운 전투가 행해진다. 군인만 가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한 군인의 뒤에 200명의 일군이 일해야 한 군인을 보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점을 한국 교회 선교를 지원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큰 일익 총회 차원에서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개 교회적으로 하되 중심점 구심점이 분명해야 한다 하겠다.

더욱 개교회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선 소위 그 시찰이란 명목에서 여럿이 수십명 씩 선교지에 가는 일도 듣고 본다. 그럴 필요도 있기도 하겠으나 그 비용이 선교비보다 더 드는 것을 듣는다. 이는 못하는 일이라고 나는 뜻을 박는다. 나는 최근 여러 선교지를 방문한 일이 있다. 남 북미 아프리카 동남아 어떤 때는 선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라 후원교회에서 대가 출장 시찰 운해서 오신다는 통고를 받으면 당황마저 한다. 그 점대 준비도 있어야 한다. 대도시 같은 데는 모르나 적은 지방은 숙소도 문제요 도시에는 그 호텔 값이 어마어마하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큰데 그들이 다 담당한다 하되 관광안내도 하여야 한다. 난처해함을 보았다. 나는 더더욱 그 막대한 비용, 선교비 이상의 비용을 그렇게 쓸 수 있는가 자문 의심하기도 하였다.

근자에도 모 교회는 선교지 시찰차 20명을 모집하는데 그 수가 차지 않는다고 광고가 심하다한다. 어느 교회는 차고 넘쳐서 대 부대행이 있기도 한가하면 정원모집에 미달이라고 유감스럽다고도 한다. 나는 왜 이렇까 좀 생각 있게 선교를 위한 선교정책이 바로 수립되어야함을 느낀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안된 일이며 여행이라면 이는 너무 사치하다. 선교사의 현지에서 쓰는 그 비용과 그 관광행의 비용을 비교하면 못하는 일이라 하겠다.

(1997년, 4권)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8쿠마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혜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Olympic Blvd.
김스전기 한남제인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8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1)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2) 교회(기관) 주소	_____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5) 사택 주소	_____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_____@_____
8) Web Add.	http://_____
9)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4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선교 펴기

스와지랜드

우아프로젝트 7월의 소식

“아름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사편146:5).

태풍과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스와지랜드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반팔로 다닐 정도로 햇볕이 따가워 이제 막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고 봄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남은 여름의 마지막 시간들에도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진료팀이 지난 10일간 열심히 섬기며, 이 땅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마음에 담아 어떻게 우리들의 삶으로 풀어낼 것인가의 숙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일상에서 더욱 치열하게 그리고 기도하며 사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국립병원, 선교병원, 그리고 정신병원 등에서 특강도 하고, 수술 및 환자 진료도 하였으며, 또 지역의 보건소 및 빈민촌에서 진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로만 듣던 스와지랜드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써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과 방법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 공립 시스템에서는 일하는 의료진들의 너무 숫자가 적어 과부하가 있는 상태이고, 그나마 일하는 전문의들의 경우도, 아ют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공부하고 온 의과료진들이라 부족한 지식과 부실한 수련과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실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개의 지역보건소들은 2명 내외의 일반의사가 일하고 있어 모자란 부분들은 간호사들이 진료, 관리, 처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나라 전체에 단 1명뿐인 정신과전문의는

국립정신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사망원인으로 뇌졸중, 관상동맥질환이 올라왔지만 신경과,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없었고, 대만에서 온 신경외과 전문의가 한사람 일하고 있으며, 병리과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한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아침 신문에는 공립기관에서 일하는 의사 10명이 사표를 내고 남아공으로 떠난다는 제목과 함께 정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에 대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근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곳으로 왔다가 기회만 되면 더 나은 조건의 남아공으로 빠져 나가기에 국공립 시스템은 더 어



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은 정부병원(약 500 병상)을 중심으로 모든 국, 공립 의료시스템에서 함께 일하면서 고민하며 개선할 방향을 찾으려 합니다. 그와 동시에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SCU Health Center를 운영하면서 외래 진료와 건강검진 및 교육 시스템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느 개인들이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뜻있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유덕중 선교사님은 두 곳 모두 필요한 사역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기도하며 기다리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성실히 따르며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

십시오.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는, 각 분야를 아울러서 최소 20명 이상의 상주 동역자들이 준비되기를, 그리고 적어도 2주씩 방문하시는 더 많은 동역자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곳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8월 첫 주부터 간호학과 첫 실습이 각 병원 및 보건소에서 시작 될 것입니다. 이를 담당할 남영주교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학생들이 성실히 실습하고 그래서 SCU 학생들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의실 및 실습실 공사가 재정문제로 좀 늦어져서 8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어서 새 학기 수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CHAPLE 점 다목적용 공사 역시 재정문제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아프로젝트에서 지원한 기자재가 이번에 부산에서 선적되어 출발하는데, 잘 운반되고, 통관, 설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순조롭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CU Health Center의 등기이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 내부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속히 이루어져서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 새롭게 4분(이 정기후원회원으로 함께 해 주셨고, 4분이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귀하게 보내주신 후원금이 값있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도 기쁜 마음으로 소식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내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와지랜드에서 우아프로젝트 드림
연락처: 김선영 sykim@cnu.ac.kr
남상윤 slnam@cnu.ac.kr

순회선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문안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겠지요? 항상 배후에서 부족한 저희부부의 사역을 위해 도와주시고 뜨거운 기도를 해주셔서 오늘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사역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격하면서 2002년 6월부터 지금까지 RV에 복음을 신고 달려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금년 2월에 L.A를 떠나서 남부와 중부를 거쳐서 동부지역을 돌며 사역을 했으며 캐나다에서 한 달 동안 사역할 때는 5월이었는데 얼마나 춥고 비가 많이 왔는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였고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였고 교회의 본질이 전도라고 간증을 통해 나눌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틀한 사탄의 가시는 연약한 우리의 몸을 계속 공격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예수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며 다니곤 했습니다.

달팽이관의 이상으로 어지러워하던 박영자 집사는 거의 완쾌되어 감사하며 좋아했는데 그만 소화불량으로 공격해와서 잘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몸무게가 15파운드 빠지고 점점 기력이 없어져 메릴랜드에서 2주 전에 피검사와 위와 장내시경을 했습니다. 의사의 위에 많은 염증이 발견되었고 대장에 작은 혹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대장의 혹은 별 것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도 3년에 한 번은 장내시경 검

사를 하고 위는 암은 아니지만 두고 보아야 할 상태라고 했습니다. 강한 약을 처방해주면서 면역이 떨어졌으니 조심하라고 하며 다음에 다시 위내시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사모님께서 교인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힘을 내어 전했습니다. 기운이 없어 조금 힘들었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느 때보다도 삽시다의 복음을 깊이 깨달으며 감동이 넘쳐서 모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많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쩌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13년을 하루 같이 달려온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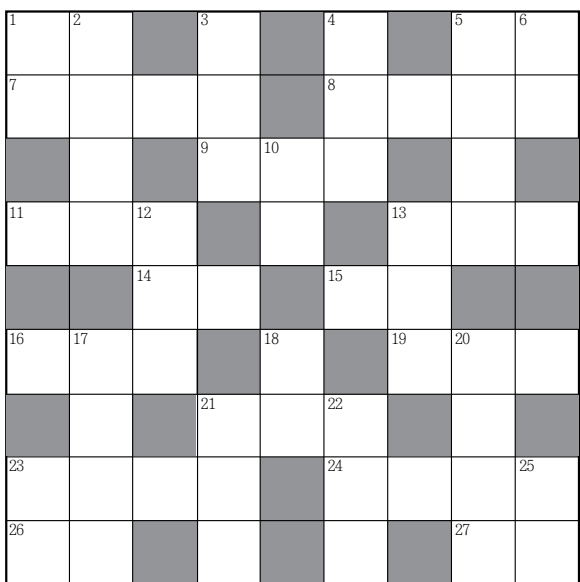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마9:37).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빛진 자의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빛을 쬐으며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에게 빛을 진 것이기에 나도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빛을 갚아야 합니다.

교회의 원초적인 사명은 전도입니다. 부족한 저희부부의 사역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강건케 해 주실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므로 주님 기뻐 노래하시고 축수시는 것을 그려보면서 주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메릴랜드에서 RV 순회전도자 박승목 박영자 드림.

십자말 • Cross Word (49)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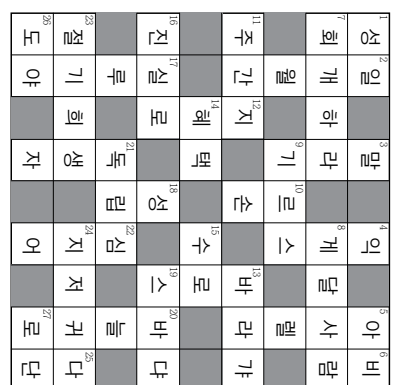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1. 거룩한 날(느8:11).
5. 아버지(신24:16).
7. OOOO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3:2).
8.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OOOO의 거하는 촌락들은...(사 42:11).
9.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가드에 가서 있으면서 이 성읍을 침략했다(삼상28:7).
11.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 잡지(삼식)
13. 요시아왕의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라의 부친(마23:35).
14. 은혜와 덕택(삼식).
15. 물길(사18:2).
16.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하실 때마다 두 번씩 강조하신 부사(요6:47).
19. 다윗왕의 30용사의 두목 중 한 사람(대상12:5).
21.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는 마음(명사).
23. 명절에 드리는 제물(출23:18).
24. 새 따위가 계속 소리를 내어 우짖다(자동사).
26. 레위족속 그핫의 자손(대상6:35).
27. 호리인의 조상의 대표자(창36:22).

<세로 푸는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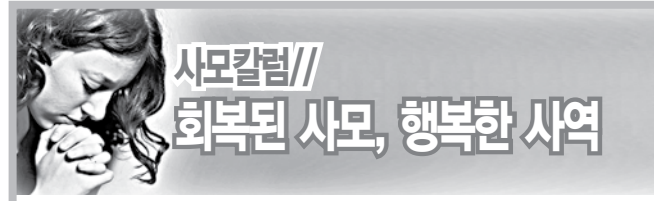
1. 거룩한 집회(레23:35).
2. 한달 동안(민11:20).
3. 소년지의 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말1:1).
4. 드고아인이며 다윗의 30용사중 이라의 부친이다(삼하 23:26).
5. 아삼의 아들. 다윗의 세 악대 지휘자의 한 사람(대상25:2).
6. 야르므 왕인데 여호수아에게 살해당했다(수10:3).
10. 엘리야의 아들. 다메섹 왕조를 건설한 인물(왕상11:24).
12. OOO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시136:5).
13. 포로에서 귀환한 한 가족이 선조(스2:3).
17. 지중해에 들어가는 아론드강 북안에 있는 항구(행13:4).
18. 일어나 물건을 이루어짐(잠15:22).
20. 악대가 부자보다 어디로 들어가기 쉽다 했나(막10:25).
21. 예수님은 하나님의 OOO(요1:14).
22. 심하면, 심하게는(행5:15).
23. 줌 도둑(요10:1).
25. 르우벤 지파인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하나님의 진노로 가족과 함께 죽음(민26:9).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1(131-231)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 (82)2-523-9419, Fax. (82)2-522-4834 500-170 경교장역사 북구 관음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흥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경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실)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63-3,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www.seongsil.or.kr Tel. (82)2-998-0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9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21 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6:0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서울 용인구 제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8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인격 가꾸기(3)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 명예, 성” 이 세 가지만 철저히 관리하면 된다고 부모님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집도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목회자는 집이 있으면 안된다는 아버지의 철저한 교훈 때문에 그 집도 구입하지 않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도 자녀들을 교육시킬 경제조차도 계획하지 않은 채 마냥 현금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돈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못한 채 자녀들은 이미 다 커 버렸습니다.

고생하며 정부 빚을 얻어가며 공부한 자녀들은 이런 엄마를 가리켜 바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돈에

에 여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더욱이 은퇴할 준비라면 누구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한지 10년, 20년이 흘러 교회를 떠날 때 아무것도 없다면 그 목회자부부는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하게 보일까요? 그러기에 요즘엔 은퇴준비를 위해 미리 선교지를 정해놓고 재정후원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사모들은 홀사모가 될 것을 우려하여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두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혼례를 준비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은 마치 성공하지 못한 사역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르침은 청빈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를 할 당시에도 자녀를 교육비보다는 고아들을 돕는 일에 더 앞장섰습니다. 교인가운데 부모 없는 청년들에게 주머니를 털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택에 방문이라도 하면 자녀들이 벗어놓고 학교간 동안 집에서 읽는 옷가지들을 몽땅 그들에게 주기도 하셨습니다.

30년 목회를 한결같이 하시다가 은퇴할 때도 얼마나 깨끗하게 하셨는지 많은 세월이 흘러간 오늘에 이르러서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청빈한 목회사역이 못내 자랑스럽습니다. 열한번 째로 태어난 막내 동생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 받아 지금도 욕심 없는 청빈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정에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목회자로서 돈에 대한 생각은 몸에 배지 않았던 자로 생각했었기에 더욱 놀라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경제의 고통이 지긋지긋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순간 새삼스레 멋진 집이 눈에 들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금 스스로 정리해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이었을 뿐 이것이 나의 인격 자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욕심이

“돈/명예/성 관리 잘하면 된다” 목회자부모 가르침 감사
청빈의 삶이 내 인격 아님 깨닫고 오히려 자유함 느껴

욕심이 없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달라스로 이사 온 이후 친구 목사님 댁을 초대받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층 집을 손수 지어서 으리으리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미국에 와서 무엇을 했나, 남들 주먹마련 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 생각해나니 갑자기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나를 무겁게 한 것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남의 집이 왜 그리고 근사하게 보이며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왜 갑자기 초라해져 보이는지 그것이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집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까지도 초월하고 사는 아주 근사한 크리스천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속적인 크리스천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살면서 재물에 대한 나의 자세는 무엇이었는가, 욕심이 없는 척한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 온 것인가, 그토록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세상의 것 모두 초월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나니 기적을 체험했다고 인격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도 세상에 게실 때 기적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모들의 상담 중 재정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사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그런 질문하는 사모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대가 된 것이지요. 이미 목회형편이 사모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므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재정이 안정이 되었어도 사모는 직장을 포기하기 어려워 계속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후대책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고 교회 사례비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기조차 싫었던 나의 속물속성을 나 스스로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나니,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를 항상 주눅 내게 만듭니다. 인격을 운운할 때마다 부담스러워지곤 합니다. 그러나 위의 세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한때는 기적을 체험하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던 목회자들도 결국은 돈 무더기에 놀려 자녀들까지도 비참하게 추락하는 광경이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신자들이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염려해주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6.25전쟁 그 이후 가난과 배고픔의 한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교회 성장과 함께 부어진 물질의 축복 때문일까요? 목회자가정의 가난으로 한이 맺혀 있던 것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에 관심을 기울이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원인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청빈함을 가르쳐 주고 가신 부모님이 떠나고 없는 현실에서 새삼 내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바라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받아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고백한 것과는 달리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앞에 놓고 고백한 말이 생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심은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시18:20-22)

다윗은 평생을 살며 어려운 일을 만나고 수많은 고비와 위험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넘기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험난한 길을 통과한 후에 보니 자신이 어느 날 보좌에 올라 왕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되새겨보니 모두다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

하고 있습니다. 고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지나고 보니 결국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고비를 넘긴 후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좇아 갚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함으로써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 하나님께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시18:23)

여기에 “완전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타땀”이라는 뜻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성도는 죄악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죄악”이란 히브리어로 “아원”인데 “꾸부러진 것, 패역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살면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나쁜 쪽을 생

각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나의 꾸부러진 성품과 나의 패역함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으면 꾸부러지고 패역한 성품은 고쳐지고 죄악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수 하나님께 무엇으로 심어야 할까?(시18:24)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찌 하든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정직함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누를 끼치거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대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시며 넘치는 상급을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통해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심어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시며!(시18:25)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심어야 하겠습니까? 자비함으로 심어야 합니다. “자비한 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5:7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심음으로써 더

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내 자신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상대적으로 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하면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도 상대적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상대와 관계없이 주님이 나에게 대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보이시며(시18:26)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심었습니다. 늘 긍휼함으로 심었습니다. 깨끗함으로 심었습니다. “깨끗함”은 20절부터 30절까지 강조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깨끗함”의 히브리어 말은 “나바르”로 “분리시키다, 쪼개다, 선택하다”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즉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오직 하나님께 나의 전인격이 고 정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을 볼 것임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한 심령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한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갚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시18:27)

오늘 우리는 겸손으로 심어야 합니다. 본문에 “곤고한 백성”이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마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곤고한 자는 망합니다. 본문 “곤고한 눈은 낮추시

리이다” 곤고한 눈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 못가서 자신이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오늘 저희들은 더욱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과 나와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 아멘.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5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광고안내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김정혜 월튼초등학교 교장이 말하는

Back to School 준비

[편집자주] 미국내 각 지역 공립학교가 '백투스쿨(Back to School)'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의 Staples나 Office Depot는 발들일 틈이 없이 북적이다. 매장도 학용품코너엔 텅 빈 곳이 많다. 긴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계절, '백투스쿨(Back to School)'의 시즌이다.

백투스쿨 관련 안내를 받기 위해 LA통합교육구 월튼 초등학교를 찾아 김정혜 교장과 이수지 특수반(차폐아동) 교사를 만났다. 토페카 드라이브 초등학교에 이어 월튼 초등학교 교장으로 17년째 재직 중인 김정혜 교장은 백투스쿨 준비와 아울러 학교소개도 했다.



김정혜 교장

새로운 시작 개학!

방학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충이 돼 학교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등교한다.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어 기대와 흥분된 마음으로 개학 첫날을 맞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다.

또한 충분한 휴식후의 만남이라 기쁨으로 만남을 이루는데 특히 저학년 학생일수록 이러한 순수함이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선생님들도

관한다.

특히 고학년을 맡은 교사들은 처음부터 나이스하게만 학생들을 대해서는 안되는 것도 철칙이다. 나이스한 말만하면 말을 만들 수도 있어 조금 엄하게 규칙준수를 강조하고 규칙에 어긋나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도 알려준다.

그 외에 학교 행사들과 음악, 오케스트라, 미술, 무용, 컴퓨터 교사들로 하여금 이런 특별공부를 하는 목적도 알게 한다. 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개학전 먼저 갖는 학부모

또한 미국 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BIC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이유론 아침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학생이 함께 아침 수업 중에 식사를 나누는 것이다. 수업 중에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찬반도 있었지만 월튼초등학교에

를 찍는 것은 학부모들이 신경 써 주어야 할 일중에 하나다. 또 자녀의 담임교사 이름이나 교실을 꼭 알아 두길 바란다. 학생을 픽업하러 와서 담임이름도 교실번호도 모를 때가 많다.

이뿐 아니라 아이들의 가방을 한번씩 살펴야한다. 학교에서는 수시로 안내문을 학생 편에 보내지만 부모님들로부터 소식이 없어 학생들의 가방을 열어보면 그 안내문이 그대로 있을 때가 많다. 이민의 삶 속에 바쁘게 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방을 함께 살펴며 하루가 어땠는지를 묻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란다. 심지어 가방에 장난감을 갖고 오는 아이들도 종종 있다. 장난감을 가져왔을 때 이로 인해 학생 간에 싸움의 소지도 될 수 있고 수업에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게임이나 돈, 잡지 등도 나오기 일쑤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가방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긴급연락망이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뀔 때면 꼭 학교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학부모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당황할 때가 종종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정상 아이들을 일찍 픽업하러 오



한국인의 건강 관리법 (2)



김광은 장로 (척추병원 원장)

수술 후유증

성경에 보면 '네 몸에 칼을 대지 말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만일 칼을 들어 몸을 망가트리면 큰 허물자국이 남고 그리고 후유증이 꼭 따라온다. 동양에서는 칼 대신에 불을 사용했다. 태워 버린다. 그러면 굳은살이 생기지 않고 새살이 살아나와 옛 살과 같이 부드러운 살이 생긴다. 유대인은 태어나서 남아에게 할례를 해 줄 때 불을 사용한다. 그러면 후유증이 없기 때문이다.

현대의학은 너무 많은 유형의 치료효과를 찾고 있지만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생명을 단축하고 오랜 기간 고통을 주기도 한다. 내 친구는 허리 수술을 두 번씩 받고도 효과가 없어 3년간 헬스센터에 가서 운동요법으로 허리통증과 좌골신경통을 고치고 있다.

요즘은 암을 찾아내어 암을 불로 태워 없애는 새로운 수술 방법이 생겨 성공하고 있다. 이런 치료방법은 동양의학에서 배워온 것이다. 5천년의 오랜 동양의학이 현대의학에 접목되어 새로운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동서의학의 접목은 새로운 현대의학으로 성장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 칼을 몸에 대고 수술을 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칼을 몸에 대서는 안 된다. 수술로 효과를 얻고도 그 후유증으로 결국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환자를 대할 때마다 칼을 사용하는 수술이 별로 인간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혹은 헬스요법(수영 등)의 효과가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통계이다. 척추교정의 올바른 효과도 한방효과만큼 권해본다.

▲연락처: (323)468-1001

기대와 흥분의 개교 첫날...부담 안 되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교사와 학부모는 파트너...아동정보, 학교공지 등 연결 필수

학생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날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Back to School의 시작이다.

개학 후 학생과 지도 교사의 자제 처음에 학교를 오면 새로운 학생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 마련이다. 먼저 담임교사 입장에서 일단 학교분위기와 교실 분위기를 설명하고 나름대로의 규칙을 점검하고 앞으로 학교생활에서의 규칙을 이야기한다. 학생들끼리도 방학 동안에 있던 이야기 서로 나누도록 만들며, 교사들은 교과과정을 테스트하면서 한두 주일을 보내게 된다.

저학년 학생들에게 캠퍼스투어도 빼놓지 않는다. 두 달의 공백동안 어색해질 수도 있고 새로 입학한 어린 학생들에게는 화장실과 식당, 도서관, 컴퓨터실 등을 안내하며 학업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식사장소 알림과 식사 끝난 후에 해야 하는 일들을 반복하여 주의시킨다. 또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나눠야 하는지,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학생들끼리 하여금 규칙을 만들게 하는 것도 개학 후에 해야 할 일이다. 교사가 이런 규칙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교사들이 하는 것보다 학생들 스스로에게 만들도록



다인종으로 구성된 월튼초등학교 태권도부 어린이들

와의 만남이다. 이 만남을 통해 처음 온 학부모들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응급상황 시 대처방식도 알게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파트너

학교마다 'Title 1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읽기와 수학에서 정규수업 외에 추가로 교육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타이틀 1'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 도전을 주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 및 할인 점심배급 도움도 줄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들과 부모가 파트너가 되어 하기에 많은 워킹을 통해 학부모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서는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 그날 선정된 학생 몇 명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학생들과 함께 나눈다. 그러나 학교에서 제공되는 아침과 점심 메뉴가 때론 학생들이 전혀 원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학부모들은 늘 메뉴에 신경을 쓰고 정말 자녀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나올 경우 간식을 챙겨주는 센스도 필요하다. 이런 일들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와의 각별한 교류는 필수다.

학부모님들 이것만은 꼭!

저학년 학생일수록 옷이나 학용품이 많이 분실한다. 그러나 가방이나 런치박스에 이름을 적지 않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지품에 이

는 학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등하교시간을 맞춰주기 바라고 병원 예약도 토요일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고 불가피한 결석을 한 후에는 노트에 결석사유서를 꼭 보내주는 것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교과과정이나 수업에 대한 메모를 보내주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개교95주년 맞는 월튼초등학교

개교 95주년을 맞고 있는 월튼초등학교의 총 학생수는 987명. 다민족으로 이뤄진 이 학교는 이중언어 프로그램(Dual language)과 영재프로그램을 도입해 한국어와 스페니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해당학군이 아니라도 원하는 학생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수의 40% 정도나 되며 학부모들의 상황을 고려해 방과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유스서비스(Youth services)로 운동장을 개방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스페셜 클래스(차폐아 등을 비롯한 장애유)가 연령별로 나눠 7개가 있으며 이곳에서 약 3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심리학자, 체육교사, 스피치교사 등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날 김정혜 교장과 함께 자리

한 이수지 특수반 교사는 "좀 더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참여하고 학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 학생이 집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순가락으로 먹는 것을 열심히 연습시키는데 집에서는 그냥 손으로 먹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이 똑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전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김 교장은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을 볼 때 '내 아이'라는 사랑으로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한다. 특별히 특수반 선생님들은 많은 애로가 있음에도 사명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교육계 34년 몸담아온 김정혜 교장의 비전

김 교장은 "행복하고 건강한 학생들을 배출하길 원한다. 학부모들에게나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학교, 가정적인 학교 문화로 더 향상시키고 싶다. 직원들도 훌륭한 분이 너무 많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교장이 되고 싶다"고 소박한 꿈을 말한다.

김정혜 교장은 34년 전 교사의 길로 들어서서 학생들을 키워오다 토페카드라이브초등학교에 이어 월튼초등학교 교장으로 17년째 사역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LA 통합교육구 내 최우수 교장으로 선정될 만큼 교육계에서 인정 받고 있다.

월튼초등학교에 관한 문의는 213-389-1181 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차세대 리더 장학금 모금 및 수여식

이 시대는 크리스천 차세대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미국 주류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하여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훌륭한 자질이 있음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각 교회와 크리스천 기업과 사업체에서는 장학금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

1. 신청자격은 9학년부부터 대학생으로 한다. (2014년9월 기준)
 2.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으로 한다.
 3. 지난 1년 학교성적이 GPA 3.5이상으로 한다.
 4.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출석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5. 가족 1년 수입 3만불 이하 가정을 우선으로 한다.
- 참고사항: 고등학생30% 대학생70% / 최저소득층 20% 타민족 10%

장학금 신청과 보낼 서류

1. 신청서(e-mail로 요청)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사본
3. 담임목사 추천서
4. 지난 1년 성적증명서
5. 현재 출석하는 교회 주보
6. 2013년 TAX Return 사본

- 접수 기간: 8월31일까지
- 수여 식: 9월 7일(주일) 오후5시
- 수여 장소: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목사)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장학금 보내실 곳

[오렌지카운티교회]

Pay to Order: CKCOC (OC기독교교회협의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문의: 송규식 목사 714-699-0210 이메일: qsong405@gmail.com

[남가주교회]

Pay to Order: CKCSC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A, CA 90006
문의: 이주철 사관 408-480-3171 이메일: james_0507@hotmail.com